

진격의 카카오, 매출 선두주자 네이버 제쳤다

국내 양대 포털이 올해 3분기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카카오 매출액이 처음으로 네이버를 앞지르며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콘텐츠 부문에서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실적을 좌우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7408억 원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조727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이번 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에서 네이버를 앞섰다. 둘 다 '역대 최대' 매출을 냈지만, 카카오의 성장세가 더욱 거셌다. 네이버가 전년 동기 대비 26.9% 성장했다면, 카카오는 58.2% 뛰었다. 다만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여전히 네이버가 카카오를 앞서고 있다.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네이버 3498억 원, 카카오 1682억 원이다.

카카오가 신사업인 콘텐츠에서 약진하며 매출 반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양대 포털의 매출 성장세는 신사업인 콘텐츠 부문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카카오의 3분기 콘텐츠 부문 매출액은 84% 증가한 9621억 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도 콘텐츠 부문이 60.2% 성장하며 전 사업 부문 중

카카오, 매출 네이버 첫 추월

3분기 매출 1조7408억, 58% ↑

게임·미디어 등 전 사업 호실적

메타버스·AI 신사업 해외 공략

네이버도 역대급 분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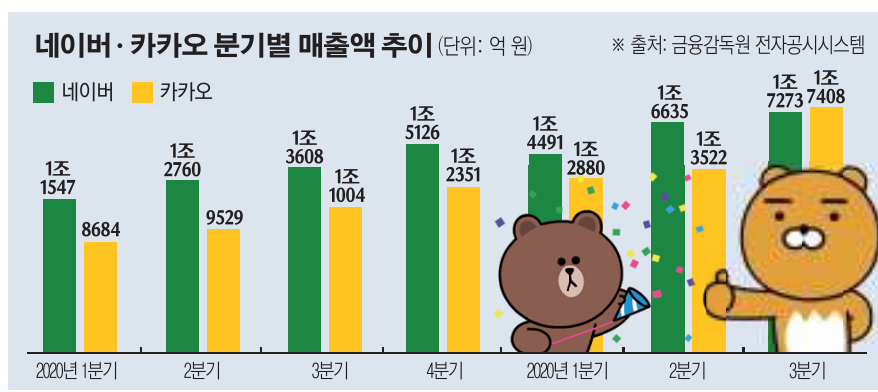
매출 26.9% 늘어난 1조7273억

검색플랫폼·커머스 견고한 성장

스마트스토어 글로벌 확장 계획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스토리·게임·미디어·뮤직 등 콘텐츠 전 사업이 호실적을 냈다. 스토리 부문에서는 플랫폼과 지식재산권(IP) 유통 거래액이 견조하게 성장한 가운데, 타파스와 래디쉬를 편입하며 매출이 47% 늘었다. 게임 매출 역시 모바일 게임 '오딘'의 흥행으로 208% 성장해 4631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미디어(102%), 뮤직(8%) 등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네이버 콘텐츠 부문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매출액 규모가 1841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Z세대를 저격한 네이버의 신사업도 힘을 더했다. 특히 스노우 자회사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역시 브랜드 제휴, 라이브게임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매출과 이용자 수를 모두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의 바탕은 기존 사업인 '플랫폼'이었다. 네이버는 주요 사업인 검색 플랫폼이 8249억 원을 벌며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생산 콘텐츠(UGC) 생태계 활성화와 검색기술 개선

성과형 광고가 성장한 영향이다. 성과형 광고를 도입해 디스플레이 매출도 뛰었다. 또한, 이와 연계한 커머스 분야에서도 매출을 33.2% 늘리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카카오 역시 3분기 플랫폼 부문에서 778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수치다. 비즈보드 카카오 특 채널 등 광고형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선물하기 등 거래형 매출도 증가하며 견조하게 성장했다.

토종 IT 공룡들은 모두 글로벌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은 계획이다. 네이

버는 웹툰 등 콘텐츠와 커머스 부문에서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사업이 올해 50% 넘는 성장을 이룬 가운데, 올 3분기까지 국내 거래액 비중이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액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와 협업도 강화한다.

또한 커머스 부문에서도 해외 사업을 확장한다. 한성숙 대표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글로벌 스마트스토어는 일본에서 지난달부터 판매자 모집을 시작했고 베타 서비스하고 있다"며 "라인 메신저와의 연계를 시작으로 향후 Z출딩스와 협업을 확대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웹툰과 게임 등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 신사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역량을 집중시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사업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법인을 지난 3월 싱가포르에 설립했고 AI를 활용한 글로벌 신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文 '원전 내로남불' 논란에 靑 "탈원전 그대로" 해명 진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상반된 회담 결과를 발표해 '원전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아데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한 것일 뿐 탈원전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아데르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 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의 항"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원전 없는 탄소중립 불가 공감"

靑 "아데르 대통령이 잘못 이해"

전경련 "에너지 위기, 원전 필요"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원전 폐쇄 등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의 원전 발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당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내·국외 원전 정책 간 모순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아데르 대통령을 만나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국내외에서 언론과 접촉하며 수습에 적극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헝가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비중을 높여 탄소 중립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며 "아데르 대통령께서 (문 대통령 얘기를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데르 대통령이 헝가리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신규건설 중단'과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쇄'에 방점을 두고 말했지만 아데르 대통령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내에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과 외국이 서로 원원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 EU 등 에너지 위기 국가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가져 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EU 등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다시 함께하는 행복이 찾아올 2021년 겨울

현대백화점 디지털 채널에서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찾아 보세요.

홈페이지 : ehyundaievent.com 인스타그램 : @the_hyundai

FIND the HAPPINESS
and share with your loved ones.



긴축발작 없었다… 비둘기 파월에 시장 일단 안도

연준, 테이퍼링 공식 발표

‘2013년 긴축발작’ 재연 방지
파월, 조기 금리인상 관측 불식
글로벌 중앙銀과 엇박자 우려
기업 실적호조, 증시 강세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공식 발표했지만, 시장은 2013년의 긴축발작 악몽을 재연하는 대신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이다.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증시가 당분간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나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비둘기파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가 호재로 작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파월 의장의 모습을 “섬세하다”고 평했다. NYT는 “이날의 핵심은 파월이 무엇을 발표했는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있다”며 “그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몇몇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의 생각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더 경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입회장에 설치돼 있는 TV 스크린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고를 전했다면 그건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일련의 상황이 금리 인상을 가속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고 풀이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조기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놔고, 연준 역시 인상 시기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시각을 똑심 있게 유지하며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을 불식시켰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연준의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 편안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

다. 다만 올해 벌어진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이번 발표는 긴축정책을 시작한 다른 국가들에 합류할 기회를 놓치는 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 우려에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 급등과 같은 나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파월 의장을 측면 지원했다.

그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70년대엔 일련의 공급 충격이 장기적인 문제가 됐고 정책 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불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며 “연준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시작에도 뉴욕증시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샌더스모리스해리스의 조지 볼 회장은 CNBC방송에서 “투자자들은 몇 달에 걸쳐 테이퍼링 시기를 기다렸던 터라 이날 발표는 시장 전반에 걸쳐 있었던 미세한 우려를 제거해 줬다”며 “연준의 발표는 기업 실적과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 활성화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오안다증권의 크레이그 열람 애널리스트는 “현재 매우 강한 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주가 하방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보다 앞서고 있다”며 “다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기로 한 만큼 투자자들이 시장에 계속 참가하도록 하려면 지속적인 경기 개선 신호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돈줄 죄는 美,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 확산

긴축 리스크 전문가 의견

인플레·달러·물류난 불안요인
“돈잔치 끝물” vs “악재 선반영” 팽팽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가 관건될 듯

11월 말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고에도 외국인들의 동요는 없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세, 달러 강세,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불안 요인’들로 인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언제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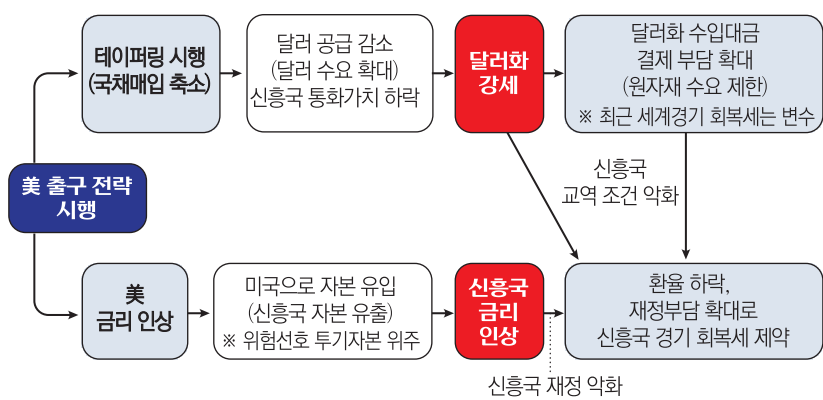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332억 원 규모의 주식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3.47포인트(0.93%) 오른 2만 9794.37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이후 약 1개월 만의 최고치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28.33포인트(0.81%) 오른 3526.87에 마감했다.

홍콩恒生지수는 전일 대비 200.44포인트(0.80%) 상승한 2만5255.19로 마감했다. 외국인은 중국시장에서 12억 위안을 순매수했다. 홍콩시장에서도 주식을 사들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돈을 늘리는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돈을 끌어모으던 주식시장의 끝물이 다가온다는 우려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 신흥국 자금 유출이 현

美 테이퍼링의 신흥국 파급 경로



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며 “패드위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60% 이상이고 9월 역시 80%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에 머물고 있다.

펀드자금 분석 업체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 10월 마지막주(10월21일~27일) 신흥국 주식형펀드에 15억 달러가 유입됐다. 전주 12억 달러보다 3억 달러가 늘었다. 신흥국 채권펀드에는 10억 달러가 유입됐다. 직전 2주 동안 26억 달러 유출에서 유입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지만 신흥국 자금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연준, 이르면 내년 6월 금리 인상

‘내년이나 후년이나’ 갑론을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돌입하면서 세계 경제와 시장 초점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당분간 현행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상황 등 대응이 필요한 때가 되면 주저 없이 행동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둬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연준은 당장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 증가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둔화했으며, 물가 상승률 역시 공급망 혼란이 원인인 만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금리 인상 시기는 인플레이션 추이와 고용 시장에 달렸다. 무엇보다 연준이 이번에 미국 경제가 최대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반복한 만큼 노동시장 회복세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 시장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전보다 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이르면 내년 6월에서부터 12월 경으로 점치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월가 대표은행 씨티그룹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 발표 이후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 전망을 기존 내년 12월에서 같은 해 6월로 앞당겼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뻣뻣한 노동시장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준 의장이 현 제롬 파월에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등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지 않는다면 9월과 12월에도 추가

미국 금리인상 전망

씨티그룹	내년 6월 첫 금리인상 9월, 12월 추가 금리인상
뱅크오브아메리카	내년 4분기 첫 금리인상
모건스탠리 MUFG증권	내년 한 차례 금리인상
CIBC이코노믹스	내년 하반기 두 차례 금리인상
UBS	내년 중 금리인상 없을 것

※ 출처: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로이터통신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파월 의장이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며, 타이트한 노동시장 지속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점들을 비춰 봤을 때 금리 인상에 급하게 나설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4분기 첫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 MUFG 증권의 스기사키 고이치 이사는 “현시점에서 연준의 돈을 감안하면 2022년 후반 완전 고용에 이른다”고 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내년 한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이후 천천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스위스 은행 UBS는 “실업률보다는 고용 수준이 완전고용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연준이 2022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연준도 금리 인상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변호선 기자 hsbun@

“시장 안도랠리 예상” vs “최악 상황 대비해야”

美테이퍼링, 국내증시 영향은

“로스컷(편입 종목 중 20~30% 가격 하락 시 자동 매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최악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4일 서울 여의도 A운용사 주식운용실 회의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지수만큼이나 주식운용팀 관계자들은 위험을 줄일 해답(포트폴리오 재편)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펀드매니저 K씨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금리 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놓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비상대책회의를 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장 분위기에선 어떤 결정도 내리기 힘들다”고 전했다.

여의도 증권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잔뜩 들뜨게 한 파티가 끝나간다는 소식에 긴장했다. 2013년 테이퍼링이 가져온 ‘긴축 발작’의 나쁜 기억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긴축발작’ 가능성은 작지만,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신흥국 증시 영향은 표면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 열악한 보건 환경과 낮은 백신 보급 속도에 따른 성장 지연, 물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며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안 심리는 시장에 반영됐다. 오전 한때 3011.56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2983.22 선(+0.25%)까지 밀린 채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는 우상향 국선을 그렸다.

◇“경계심리 선반영한 안도랠리 예상”= 시장의 관심은 테이퍼링보다 미국의 금리

경계심리 선반영·금리 우려 해소
국내 증시 변동폭 줄여주는 역할

“스태그플레이션 땀 충격” 우려도

교역조건 악화, 수출 업종 먹구름
시장금리 상승, 자금유출 늘 수도

인상 시계로 향했다. 이날 증시가 예상보다 차분했던 것도 연준이 일단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에는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금리 인상이 없다는) 연준의 기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공포감 때문에 빠졌던 한국, 대만 등 신흥 시장에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월 FOMC 이후 위험자산 강세가 뚜렷했던 이유는 그동안 테이퍼링 경계심리를 선반영했던 상황에서 안도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유동성 공급은 지속하는 가운데 그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이제는 투자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국내 장은 올해 중반 이후 약세장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연준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인 행보는 약세장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7.51포인트(0.25%) 상승한 2983.22에 마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동반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증시의 충격이다. 뉴욕 증시의 간판 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지난 60년 사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기간 평균 2.1% 떨어졌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격(수익률과 반대)은 1972~1982년 사이 연간 기준 9번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이 보유한 미래 현금흐름의 구매력을 갉아먹는다. 미국

의 인플레이션 확대는 달러화 강세를 유발해 신흥국 자금 유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금리, 자산 재평가될까= 관건은 글로벌 경기 흐름과 세계 경제가 받을 충격을 우리 경제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교역 조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안은 부담은 큰 상황이다. 교역 조건 악화는 연쇄적인 경제위기 반응의

출발점이다. 수출입 물량에 큰 변동이 없을 때 교역 조건 악화는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월 작년 동월보다 4.5% 떨어졌다.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적은 상장기업들의 주가와 직결된다.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외국에 지급하기 위한 외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4일 달러당 원화 가격은 1182.60까지 떨어졌다. ‘빅 피겨(큰 자릿수)’인 1200원대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증시에서도 외국인은 발을 빼게 된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31조7546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달에도 1475억 원 어치를 팔고 있다.

이경민 연구원은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코스피는 불안한 등락을 보인다”며 “달러 강세와 더불어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고 IT, 특히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내년 실적 전망 하향 조정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예상했던 수준” 채권시장 안정세

정부 ‘2兆 긴급 바이백’ 힘 보태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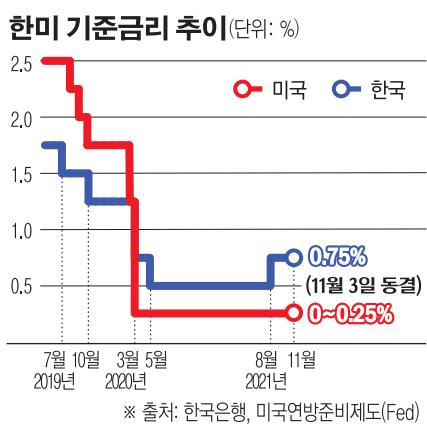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0년 물 금리는 전일보다 0.042%포인트(p) 하락한 2.428%에 고시됐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만큼 강세를 기록한 것이다. 3년물 금리는 0.004%p 오르는 데 그친 2.040%를 보였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한 데다,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정책금리 인상 간 거리두기에 나선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확산하면서 채권시장 일각에서는 연준 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 내년 말에서 내년 중순까지도 앞당겨 봤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 결과를 비교적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다”며 “기준에 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던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 얼마만큼 가격에 반영했었는지에 따라 금리 하락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증권사 채권담당인 A 본부장은 “예상했던 수준이어서 특별히 영향받을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난번 FOMC에서도 첫날엔 비둘기파(통화완화)로 평가해 금리가 빠졌다가 다음 날부터 반등한 경험이 있다. 며칠간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도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 앞서, 2조 원 규모로 긴급 바이백(국고채 매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기재부는 매입 시기를 5일로 확정해 데 이어, 매입 대상 종목으로 3년과



10년 국채선물 바스켓(만기 시 최종결제 기준 채권) 종목인 21-1(2021년 첫 번째 지표채권)과 20-9 종목을 포함했다. 바스켓 종목이 국채선물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줬다.

다만, FOMC가 예상수준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한은 금리인상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이미 11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관심은 이주열 총재 임기 종료 직전인 내년 1~2월로 쏠리고 있다.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큰 변수는 총재 임기다. 통상 임기 전 잘 안 올리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금통위원 중에 매파(통화 긴축)들이 워낙 많아 내년 1~2월 중에도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미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11월에 이어 내년 1분기 중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 추가 인상은 내년 말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11월 금통위도 10월보다 더 매파적이기 어려워 시장금리는 당분간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www.kwnews.co.kr

강원일보 구독자 130만 돌파!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일보 창간 76년,
네이버 모바일 뉴스채널에 입점해 구독자 13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산업용 원료 수입〉

중에 98% 의존해온 요소수, 대안 없어 속수무책

다른 나라서 수입?

중국·호주 분쟁에 전세계 품귀
러시아 등 국외 요소 유출 막아

산업용→차량용 전환?

정부, 기술 검토에 전문가 우려
“요소 함량·촉매 달라 부적절”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물류업계에 이어 비료업계, 시멘트업계 등 다른 산업에도 불뚝이 튀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디젤 차량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한 상황이다. 디젤차 비중이 높은 데다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기준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는 97.6%가 중국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우선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디젤 엔진 차량인 화물 트럭이 멈추면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대 가운데 60%가량을 차지하는 약 200만 대에 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수이다.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20% 정도로 감소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

하도록 설계돼 있다.

요소 부족 현상은 비료와 시멘트업계 등 다른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요소는 농사용 화학 비료의 주성분이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수입된 55만 톤(t) 중 22만톤이 비료용이었다.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도 요소수를 뿌려 제거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딱히 없다. 요소를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가급적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소방 등 공공 영역에도 요소수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소방당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6748대 소방차 중 80.5%, 1675대 구급차량 중 90.0%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다. 이에 소방 당국은 1일 전국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요소수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서둘러 검토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요소수는 요소 함량에 따라 차량용과 선박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구분하고, 촉매 성분도 달라서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차량용 요소수가 많이 보급될 때에는 이 같은 전환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었다”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기부하고 줄 서고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김준희 정해네트웍스 대표가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상으로 요소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김 대표는 정해네트웍스가 운영하는 6개 주유소에 ‘소방차, 119구급차 요소수 급하면 그냥 오세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는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 전북 익산 시민들도 요소수 제조 공장 앞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끝에 1인당 2통씩 요소수를 구매했다.

사진제공 정해네트웍스·연합뉴스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자영업 취업

1년새 3만명 줄어 8월 661만명
나홀로 사장님 6만명 가까이 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자영업 관련 취업자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두고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6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4일 발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 8월 기준 자영업 관련 취업자인 비임금근로자는 66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9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9%로 0.6%포인트(P) 하락했다. 8

월 기준으로 보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자영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원을 둔 사장님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나 홀로 사장님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1000명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 9000명으로 5만 6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2만 1000명), 제조업(-1만 5000명) 등에서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상당수 자영업자가 인건비

등 고정지출부터 줄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키오스크 도입이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기반 노동이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현재 사업체 또는 일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p 증가했다.

반면,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0.8%p 감소했다. 현재 사업체를 그만둘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된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52.0%), 개인적인 사유(27.9%),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11.8%) 순으로 높았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KTL·체코프라하공대, 디지털전환 연구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체코 프라하공대가 산업 디지털전환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KTL은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코프라하공대와 ‘산업 디지털전환(IDX·Industry 4.0) 기술 분야 정보 교류, 공동 연구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인 비셰그라드그룹(V4) 간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계기로 이뤄졌다.

체코는 유럽연합(EU)의 4차 산업혁명 주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인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 프라하공대 등

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제조업 디지털 전환,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등 9개 혁신 축을 수립해 자국 내 기초 R&D 투자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 및 디지털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기술 정보 및 상호 요청 정보 교류 △공동 연구 제안서 작성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참여 △기술 프로젝트 및 표준화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김세종 KTL 원장은 “프라하공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공동 산업 디지털 전환 R&D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무역보험공, 헝가리와 수출금융 협력 체계 구축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양국 기업의 수출 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수출입은행(EXIM헝가리)과 양국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중 하나인 한-비셰그라드 그룹(V4)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V4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로 구성된 중유럽국가 협의체로,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EU) 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무역보험 인수·채권회수 경험 등 무역보험 관련 정보 및 정치·경제 정보 교환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한국기업의 헝가리 투자·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등에 나선다. 특히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폭넓은 기회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하루 확진 5000명 이상? 비상방역 기준 다듬는다

연일 2000명대에 미접종자 56%
사망자 24명 1월 이후 최다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비상계획 세부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세부기준을) 전문가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정밀하게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범위를 늘린다든가,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일부 제한한다든가 등에 안(案)은 가지고 있으나, ‘중환자 병실 가동률 75% 이상’, ‘하루

확진자 5000명 이상’처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8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가 24명으로 1월 12일(25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확산세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8주간(8월 29일~10월 23일) 확진자의 접종률을 보면, 인구의 20%도 안 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55.5%, 위·중증환자의 67.5%, 사망자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완전 접종자의 확진자 비중은 22.1%다.

앞서 방역당국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획 조치가 발동되면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축소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 방역·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하루 확진자 수 상한선을 5000명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소셜벤처허브 개관 2주년

앞으로도 소셜벤처허브는 소셜벤처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소셜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팅

판로지원

소셜벤처 아카데미

입주기업 공간운영

• 사업문의 : 02-6230-0304~6 •

I·SEOUL·U
소셜벤처허브
Social Venture Hub

 서울특별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 ‘이재명호’ 度 넘은 당정 갈등

당 일각 “무조건 관철은 어려워”
文대통령 교통정리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체제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세제에 ‘이재명표 정책’을 담으려 하지만 정부가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논란이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을 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동시추진과 손실보상 대폭 증액에 대해선 재정마련이 쉽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로도 다투고 있다. 홍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계 핵심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2023년 과세유예를 공개 촉구하며 재정부안을 힐난했다. 이후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과세유예 입장과 당정협의 예정을 밝히며 정부와의 논쟁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대쟁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 후보와 논쟁을 벌여온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주머니 뒤흔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노골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이 후보가 제시한 정국회 과제 중 첫 번째라 관철시키지 못하면 면이 서지 않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를 통해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니 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 반대에는 “설득하고 타협하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신현영 원내대

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 총리 반대에 대해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재원마련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갈등을 두고 당내 의견은 갈린다. 대선후보라고 무조건 관철할 순 없다는 원론적 입장과 이 후보 부각을 위해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홍부총리와 상의하고 이 후보 뜻도 존중하며 지혜를 모으겠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나”라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반면 이재명계 한 의원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민주당보다는 이재명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송 대표에게 건의했다”며 “재난지원금 의지가 강하니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제인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11일을 마지막으 고위 당정정 협의가 중단된 후 당정갈등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시기라 문 대통령이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uknow@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위 사진 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 아래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후보. 연합뉴스·신태현 기자 holjjak@

“25년간 선물옵션까지 다해봐 테마주 말고 장기 보유하시라”

거래소 간 이재명 “난 꽤 큰 개미”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주식 장기투자는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에서 지나친 변동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장기투자는 좋은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스로를 ‘꽤 큰 개미’라고 자처하며 1992년부터 25년간 직접 주식 투자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주식뿐 아니라 선물, 옵션까지 했는데 한때 1분도 못 쉬고 살까, 팔까 했었던 적이 있다. 결론은 비용이 더 많이 나오더라”며 “테마주나 작전주엔 손대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우량주 장기보유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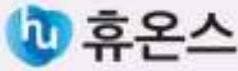
경제부총리는 “주식 장기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대치되는 대목이다. 증권사 CEO 출신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카카오뱅크 출신 이용우 의원이 자리했으며,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박소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 김지은 DB증권 펀드매니저 등도 참석했다. 이 후보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의 필요성에 대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좋겠다”며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 배정 비율이 늘어났는데,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중도 좀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비와 관련해서 “ESG 경영 지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연금 투자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나 홍준표냐

오늘 발표...당원 최종 투표율 64%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최종 당원 투표율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판세 가능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지 호소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나흘간 책임 당원 선거인단 56만9059명 가운데 36만3569명이 투표(모바일, ARS)에 참여해 투표율은 63.89%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투표가 시작된 1일 오후 5시 투표율은 43.8%로 마감하며 첫날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양강구도인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근 유입된 신규 당원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두 주자의 지지율도 팽팽해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4일 발표한 11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각각 27%로 동률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두 후보는 모두 마지막 격전지로 경기를 택했다. 윤 전 총장은 오전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경기 포천 송우리 시장과 경기 연천군 전곡시장을 방문했다. 그는 송우리 시장 상인들과 만나 “경선 마지막 날 서민 경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삶의 현장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우리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았다. 홍 의원은 “오늘 마지막 경선일정을 경기도에서 마치고자 한다”며 “여기가 경기도 차베스의 본거지로 본선에 들어가면 경기도 1300만 유권자, 도민들이 바로 대선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갱년기엔 갱년기유산균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인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확인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

“내 안의 나를 깨우다”

갱년기,
참지 마세요!



갱년기 여성건강과 장건강 동시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 소재**

* 2021. 2월 기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사 (주)휴온스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소비자 상담실 080-447-4700

“美 집값, 정점 찍었다 금리인상땀 수직 하락”

‘서브프라임 사태’ 예언한 젤먼
“금리 오르면 조정 뚜렷해질 것”
과열지구 주택값 상승세 둔화



미국 주택시장이 정점에 달해 곧 조정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가 유명 주택시장 분석가이자 젤먼앤어소시에이츠 최고경영자(CEO)인 아이비 젤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동안 역사적인 가격 급등을 겪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이미 정점을 찍었거나 거기에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애리노나주 피닉스 등 투자 자금이 집중된 과열 지역이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까지 소폭 오르면 수요가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먼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되기 2년 전인 2005년 시장 피크를 예상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S&P 코어모직케이스-실러의 8월 전미 주택가격지수(연율)는 전달과 같은 19.8% 상승률을 나타냈다.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20%에서 19.7%로 둔화했다.

특히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등 코로나19 사태로 활황이 됐던 지역에서는 가격이 갑작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을 정도로 보이시는 코로나19 시대 미국 주택시장의 열풍을 잘 보여줬다”며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의 균열은 낮은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원격 근무에 의해 촉발된 부동산 붐이 강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초기 징후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젤먼 CEO는 리스크가 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로 거품이 확대됐던 지난번과 같은 규모의 전국적인 붕괴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징후는 지난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주요 구매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을 밀어 올림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수주 잔액을 안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주택용지 가격을 앞다퉈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시장에 가장 큰 위협은 아이바이어(iBuyer)에서부터 임대용 단독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던 사모펀드들까지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매도를 시작하면서 시장에 공급이 과부하 되는 것이다.

아이바이어는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사업인 ‘주택 플리핑(Home-Flipping)’을 하는 구매자들을 뜻한다. 미국 부동산정보업체 질로우의 최근 올해 남은 기간 아이바이어 사업부인 ‘질로우 오피스’의 주택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젤먼 CEO는 “건축업자들이 이제 막 시공한 집을 완성할 때쯤이면 더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주택건설업 시장으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텍사스주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등을 꼽았다. 그는 “지금의 우려가 옳해, 심지어는 내년에도 현실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한바탕 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금리가 오른다면 이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구글, 美 국방부와 수조원 규모 계약 재추진

“군 프로젝트 참여는 전쟁 개입”
3년 전 직원 반발로 무산된 사업
클라우드 부문 부진 만회 노린 듯



구글(사진)이 전쟁기술 개발 참여를 반대하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도전을 포기한 지 3년 만에 다시 미국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책임자인 토마스 쿠레인이 이번 주 미 국방부 관리들과 만나 ‘합동전투 클라우드 역량(JWCC)’ 프로젝트 입찰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 정보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해 관리들과 군인들이 실시간 정보와 인공지능(AI) 기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0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1조8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던 비슷한 제다이(JEDI, 합동방어인프라) 프로젝트가 7월 취소됐다. 2019년 유력한 수주 후보로 꼽혀왔던 아마존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업자로 선정되면

서 소송전으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 재검토를 지시한 뒤 상황이 역전돼 수주전에서 탈락하자 해당 사업의 진행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가져본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수정된 새로운 프로젝트로 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프로젝트는 3년 계약으로 대체됐고 여러 사업자가 분할 수주할 전망이다. WSJ는 새 사업자 선정 수주전에 MS, 아마존, 오라클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의 국방부와의 협력은 3년 전 사내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8년 수천 명의 구글 직원들은 AI를 활용해 비디오 이미지를 해석하고 드론 공격 표적을 조정하는 데 쓰이는 군사 프로그램에 회사가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직원들은 “구글은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작업은 회사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글은 ‘무기 또는 상해를 입히는 도구’에 적용될 수 있는 AI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해당 프로젝트 작업도 중단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부문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구글에 미 국방부의 클라우드 사업은 단념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구글은 올해 3분기까지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136억7000만 달러로, 이미 전년 총 매출을 5억 달러나 앞질렀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6%에 불과해 아마존과 MS의 41%, 20%에 크게 뒤처진다.

구글은 이미 8월 미 해군의 시설과 선박 유지 관리에 AI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미 공군과 항공기 정비 및 조종사 훈련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는 계약도 체결하는 등 조용히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구글 노동조합은 트위터에 “구글은 국방부와 함께 수익성이 좋은 계약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 싸우고 이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中 ‘생필품 비축’ 공고에 사재기 열풍

4일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이 밀가루 포대를 매대에 채워놓고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국민들에게 생필품을 비축하라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로 몰려들었다. 사재기 현상은 창저우와 충칭, 허난성 정저우 등 최근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대만과의 전쟁을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날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올해 식량 비축량이 7년 연속 6500만 킬로그램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사대 수습에 나섰다.

4일 중국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이 밀가루 포대를 매대에 채워놓고 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국민들에게 생필품을 비축하라는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로 몰려들었다. 사재기 현상은 창저우와 충칭, 허난성 정저우 등 최근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대만과의 전쟁을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날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올해 식량 비축량이 7년 연속 6500만 킬로그램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사대 수습에 나섰다.

베이징/AP연합뉴스

이란 “핵합의 협상” 美 “진지함 보여라”

5개월여 만에 빈에서 회담 재개… 美 “기회 영원치 않아” 경고

5개월 넘게 중단됐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한다. 이란이 협상 재개를 위해 임시 핵사찰을 허락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란을 경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알레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장 사무차장과 11월 29일 빈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와 미국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협상 자리에는 기존처럼 중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이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미국은 참석하지 않고 이란 특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협상국들은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권 시절 파기된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한 지 두 달 만인 6월 이란이 협상 조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재개에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도 무기한 중단됐다. 당시 이란에서 강경보수 성향의 세에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이로 인해 협상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지난달 이란이 돌연 IAEA의 핵사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 재개도 급물살을 탔고, 협상국들은 연내 다시 모일 수 있게 됐다. 이란은 IAEA 사찰관이 자국 핵시설에 영상 녹화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허용했다.

협상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전망은 밝지

않다. 이란의 새 정권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미국은 이란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영향이다.

협상 재개 소식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대표단이 진지함을 보이면 협상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우린 이 기회에 창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진 이날 미국과 이란은 유조선 억류 사태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주 오만 해역에서 미 해군이 유조선을 나포하려던 시도를 우리가 저지했다”며 “미군은 우리가 개입하기 전까지 유조선을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이끌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 측의 설명은 완전히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박을 나포한 건 이란”이라고 맞받았다. 고대영 기자 kodae0@

해킹그룹에 칼 빼든 미국 이스라엘 NSO 제재 결정

미국이 스파이웨어 개발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업체를 제재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스라엘 IT 보안 업체 NSO 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기업인 칸디루, 러시아 포지티브테크놀로지스 등도 사이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NSO가 개발한 스파이웨어가 해외 국가에 팔려 언론인과 대사관 직원 활동가들을 악의적으로 해킹하는 데 사용됐다”며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NSO가 개발한 페가수스는 침투성이 고도로 높은 스파이웨어로, NSO는 미국 연방 기관을 포함해 각국 정부에 페가수스를 공급해왔다. 9월 애플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한 인권운동가의 아이폰이 NSO가 만든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며 즉각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왓츠앱 사용자 1400명을 타깃으로 공격한 혐의로 NSO를 고소했다. 앞서 7월엔 NSO의 페가수스 프로그램을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34개국 600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의 번호가



스파이웨어
(Spyware)

사용자 몰래 컴퓨터에 잠입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로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

수집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NSO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당혹스럽다”면서 “우리 기술은 그간 테러와 범죄를 막아주면서 미국가 안보 유지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인권 보호 및 법 준수에 힘썼는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제품을 악용한 정부 기관과는 이미 계약을 파기했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은 출자·핀테크 예산 재검토”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금융위 ‘예산 축소’ 고려하고
신보 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2201억 부실예상금액 전망
FIU엔 전문인력 배치 확대

2022년 금융위원회 예산안과 정무위원회 검토 의견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올해 대비 20% 증가한 600억 원 편성	정책 모기지 수요 감소할 수 있어 공급 목표 현실적인 재산정 필요
산업은행 출자	올해 대비 25.5% 증가한 6400억 원 편성	민간운용사 관심 높아 증액할 필요 크지 않다
핀테크 자원 사업	올해 대비 20.6% 감소한 145억7900만 원 편성	테스트비용 지원 수요 감소 고려해 추가 감액 여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운영	올해 대비 15.6% 증가한 58억4700만 원 편성	여전히 인력 부족, 적정 규모 인력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

※자료 :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금융위)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발(發) 금융지원책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약 2200억 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상자산 관련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해서는 인력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금융위)’에 따르면 정무위는 신용보증기금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일시에 상환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환 유예가 장기화할 수 있고 부실을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인해 2201억 원의 부실예상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연장 보증잔액(6조2311억 원)에 2% 부실률을 적용한 규모다. 정무위는 “부실률이 증가할 경우 부실예상액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부실률 상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무위는 금융위가 9월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출자와 핀테크 지원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3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뉴딜펀드 등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저소득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출자 사업에 전년도 1300억 원(25.5%) 늘린 64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예산을 출자해 뉴딜 분야

중소벤처와 중견기업 등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사업 첫해인 올해 정부 재정 5100억 원과 정책 자금 8000억 원, 민간자금 2조6900억 원 등 모두 4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했다. 지난달 기준 조성 금액은 이에 못 미치는 1조6833억 원이다.

정무위는 “민간출자모집액(민간에서 각 펀드에 출자하기로 확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까지 자펀드 누적 결성 금액은 4조1378억 원”이라며 “펀드결성시한(연말)까지 조성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무위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민간 운용사들의 관심이 높으며 “2022년도 사업 예산을 애초 정부가 발표한 6000억 원에 비해 증액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가 출자금을 늘리면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정무위는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출자 비율을 하향 조정해 민간 중심의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45억7900만 원을 편성한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한다

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2년간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할 기회 부여) △지정대리인 제도(금융사가 핀테크에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사와 핀테크가 협력해 금융 서비스 제공) △위탁 테스트 참여 기업에 75% 비용 지원(최대 1억2000만 원) 등을 해왔다. 3가지 제도의 지정 현황은 2019년부터 매해 98건, 68건, 18건으로 줄었다.

정무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의 수요와 지정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역시 저조하다”며 “2022년의 테스트비용 지원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가로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무위는 FIU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상자산 감독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적정 규모의 인력을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조용병 “탄소중립 시대 마중물 될 것”

“국가의 저탄소 경제 가속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용병(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3일 오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공식 행사인 ‘마라케시 파트너십’에서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국가의 저탄소 경제 가속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라케시파트너십은 정부, 기업, 민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후 행동 확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COP26 주요 행사 중 하나다. 오는 11일까지 금융, 에너지, 산업, 법률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날인 3일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테마인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파 이낸스 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COP26 기후행동 챔피언 나이젤 토피, 유엔 기후 특사 마크 커니,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과 함께 알리안츠,

유엔기후변화협약 참석 ‘금융 저탄소 전환’ 토론



방법과 감축 목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해 저탄소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전 세계 금융이 탄소중립을 향해 같은 뜻을 모으는 자리에 대한민국 금융 대표로 참석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국가의 저탄소 경제 가속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HSBC, AXA 등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금융 기관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 회장은 아시아 민간 금융사 대표로는 처음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글로벌 자문사 블랙록, 네덜란드 연금 운용사 APG 대표들과 ‘금융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 회장은 탄소 중립 전략(Zero Carbon Drive)를 소개하고 신한금융이 실행하고 있는 자산포트폴리오탄소배출량 측정

대출 규제강화·금리 상승에 실수요자 ‘발동동’

금융 인사이트

최근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하루 사이에 0.2%포인트(p) 상승하는 등 말 그대로 자고나면 대출금리가 뛰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상승을 예측하고 고정금리를 택할지, 당장 크게 낮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초 A은행의 금리가 하루 만에 0.2%포인트(p)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A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3.68~4.68% 수준이었었는데 전날 금리(3.47~4.47%)와 비교해 불과 하루 사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0.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이는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두 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의 상승 폭은 더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2~4.42%에서 3.97~5.377%로 올랐다. 두 달 사이에 약 1%포인트나 뛰

A은행 대출 금리 변동 추이				4대 시중은행 대출 금리 현황		
하루				3개월		
대출	10월 31일	11월 1일	증감 폭	대출	2021년 8월 말	2021년 11월 1일
신용대출	3.47~4.47%	3.68~4.68%	0.21%	신용대출(1등급, 1년)	3.02~4.17%	3.35~4.68%
주담대(혼합형)	4.00~5.20%	3.88~5.08%	0.12%	주담대(변동금리)	2.62~4.19%	3.31~4.81%
				주담대(고정금리)	2.92~4.42%	3.97~5.38%

대출금리 가파른 상승 ‘주담대 고정금리’ 변동 추월
내년 7월부터 1억 넘으면 ‘DSR 40%’ 고강도 규제

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금융인사이트]뻘뻘해진 조건에 날뛰기 금리까지 시름 늘어난 대출자재 3.35~4.68%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33%포인트, 상단이 0.5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 될 가능성이 높다. 인상 폭이 시장금리에 반영될 경우 대출 금리는 연말께 최대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출자 입장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점도 고민거리다. 유동성이 큰 금융 환경에서는 고정금리를 택해야 하는데, 당장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6%포인트나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를 찾는 대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은, 우선 은행들이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정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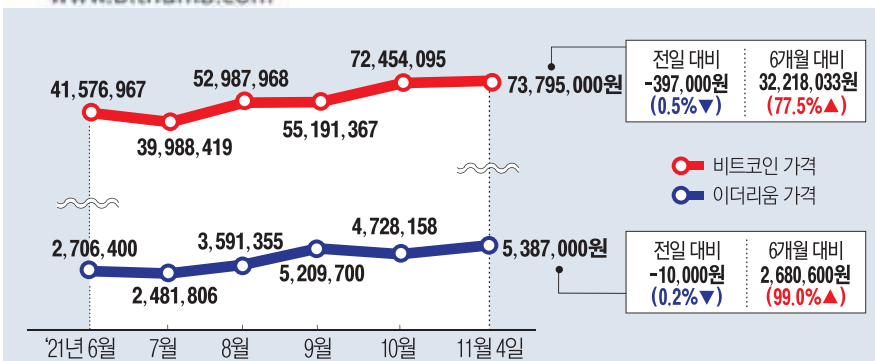
으로 고정금리의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의 경우 한 달 주기로 예금(수신) 금리 등 조달 비용을 반영해 바뀐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체로 고정금리의 상승 속도가 변동금리보다 빠르다.

내년부터는 대출구멍이 더 좁아진다. 금융당국이 담보 가치가 아닌 소득에 맞게 대출받도록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점을 앞당기면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저신용·취약 대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소득에 따른 대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근 기자 nova@

bithumb 빚썸
www.bithumb.com

빚썸 지수 (2021년 11월 4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銀-KG이니시스, 혁신금융서비스 ‘맞손’

하나은행은 KG이니시스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및 공동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KG이니시스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결합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데이터 및 AI 역량을 활용한 미래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G이니시스의 PG 솔루션과 하나은행의 금융서비스 공동개발 △글로벌 사업 전략 공동 수립 및 운영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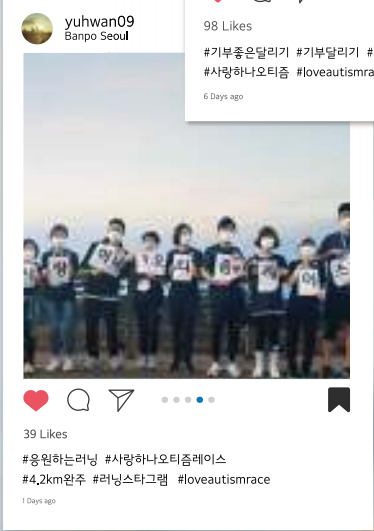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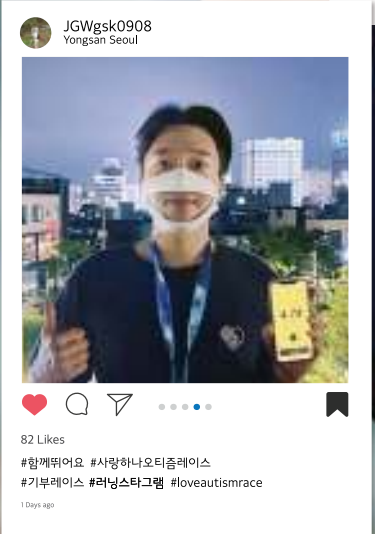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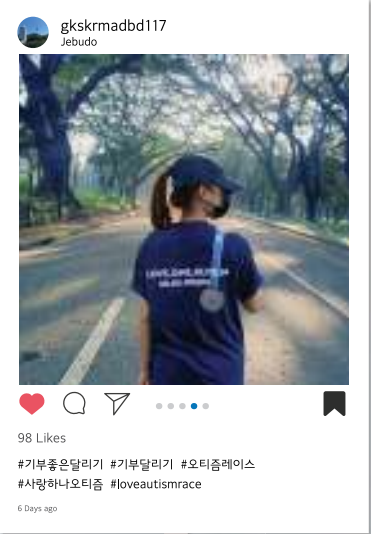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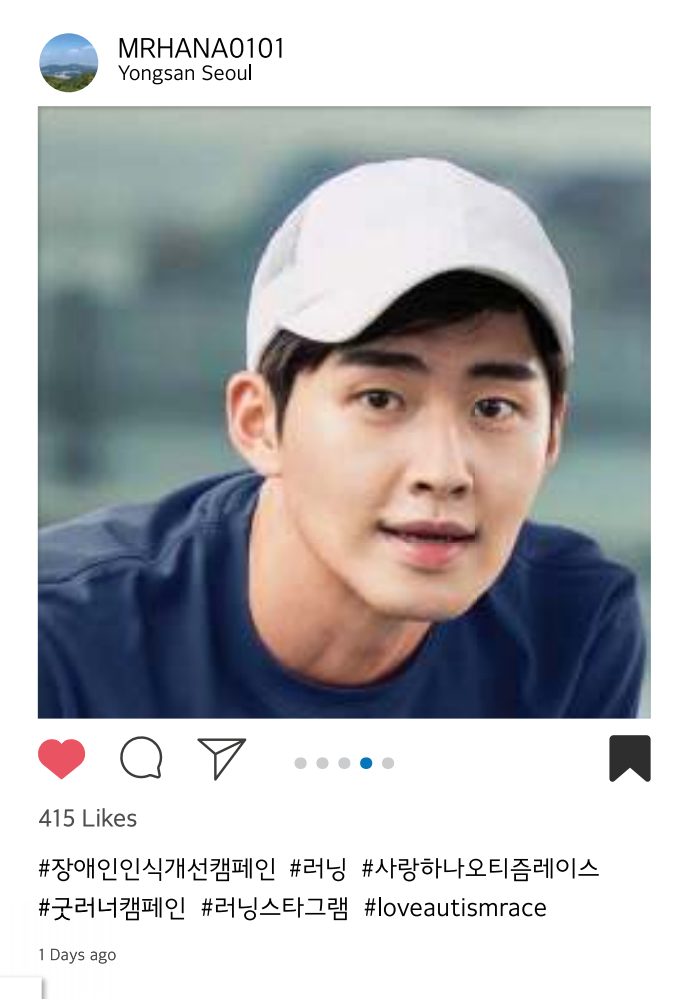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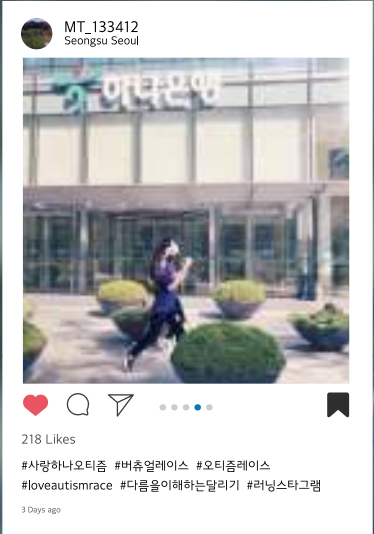
나원류 애자일랩의 스타트업 투자 및 개발·육성 등에서 협력한다.

황보현우 하나은행 데이터&제휴투자본부장은 “국내 이커머스 결제 시장의 리딩 기업인 KG이니시스와 상호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업을 지향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플랫폼 전략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 bean@



황보현우(오른쪽) 하나은행 데이터&제휴투자본부장과 유승용 KG이니시스 대표이사가 3일 서울시 중구 KGEI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국내외 임직원 530여 명 레이스 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달립니다

자폐인과 당신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아가는
4.2km의 달리는 응원석,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세상을 향한 그들의 도전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하나은행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年 5% 이상 고금리 매력” 슈퍼리치 ‘영구채’ 베팅

일반 회사채보다 안정적 수익
금리 상승기에 ‘장기투자 자산’
최소 30년 만기에 연장 가능
원금상환 의무 없어 ‘고금리’
조기상환 안 될 경우 고려해야

서울 서초구 거주하는 김나리 씨(가명·55)는 최근 시중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5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그는 강남권에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큰 손으로 통한다. 은행 영구채 발행 예정 소식을 담당 PB(프라이빗뱅크)에게서 전해들은 김 씨는 한 달 전에 10억 원어치를 주문했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일부만을 손에 쥌 수 있었다. 일반 정기예금의 2배가 넘는 고금리 매력에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에 끌렸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새로운 자본 확충 수단으로 자리 잡은 ‘KP(한국계 외화채권)영구채’가

금리 상승 시 KP 영구채 vs 일반 채권 1년 투자수익률 비교					
채권	항목	±0bp	±50bp	±100bp	±150bp
국민은행 4.35 PERP (2024년 7월 콜옵션) YTC 2.375%	평가손익 쿠폰수익	-1.76%	-2.53%	-3.3%	-4.06%
	투자수익률	2.59%	1.82%	1.05%	0.29%
신한은행 3.75 2027년 9월 만기 YTM 2.327%	평가손익 쿠폰수익	-1.25%	-3.33%	-5.45%	-7.52%
	투자수익률	2.5%	0.42%	-1.7%	-3.77%
현대캐피탈 2.375 2027년 10월 만기 YTM 2.323%	평가손익 쿠폰수익	-0.05%	-2.34%	-4.57%	-6.75%
	투자수익률	2.32%	0.03%	-2.2%	-4.37%

•bp : 이자를 계산 시 사용하는 최소 단위. 1bp=0.01%
•ytic : 예상 만기 기준 수익의 상환 수익률
•ytm : 채권 만기 수익률
•콜옵션 : 발행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

※출처 : NH투자증권

슈퍼리치(고액자산가)들의 장기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기에도 일반 회사채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구채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채권 성격을 갖고 있고 만기 연장 가능성이 있고 원금 상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 성격을 갖고 있어 채권과 증권이 결합된 신종자본증권으로도

불린다. 영구채라는 명칭은 만기가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특성에 따라 붙었다.

4일 NH투자증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리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낮고 이표금리(캐리)가 높은 영구채가 채권보다 우수한 투자 성과를 냈다.

NH투자증권이국민은행영구채(2024년 콜 가정), 신한은행 채권(2027년 9월 만기), 현대캐피탈 채권(2027년 10월 만기)

을 1년 보유했을 때 금리가 50bp(1bp=0.01%포인트)가 오른다면 국민은행 영구채 수익률이 1.82%(쿠폰수익 제외)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채권과 현대캐피탈 채권은 각각 0.42%, 0.03%였다.

시장 금리가 100bp 오를 때에도 국민은행 영구채가 1.05%로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신한은행채와 현대캐피탈채는 각각 -1.70%, -2.20%였다. 150bp오른다면 국민은행 영구채는 0.29%, 신한은행채 -3.77%, 현대캐피탈 -4.37%였다.

김준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 상승으로 무위험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듀레이션(투자금 회수 기간)을 낮추고, 캐리 수익(이자 수익+보유이익)이 높은 영구채 투자가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영구채에는 우리은행 5.25 PERP(2022.5 CALL), 교보생명 3.95 PERP(2022.7 CALL), 흥국생명 4.475 PERP(2022.11 CALL), 한화생명 4.7 PERP(2023.4 CALL), KDB생명 7.5 PERP(2023.5 CALL), 신한지주 5.875

PERP(2023.8 CALL), 국민은행 4.35 P-ERP(2024.7 CALL), 우리은행 4.25 P-ERP(2024.10 CALL) 등이 있다.

영구채의 인기는 무엇보다 연 5% 이상의 고금리에 있다. 영구채의 경우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사가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리가 높게 설정된다.

이자를 상송 위험도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구채는 일정 시점(3~7년) 이후 조기 상환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려 지급하는 스텝업 조항이 있다. 이 조항으로 향후 가격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발행기업의 신용 사정에 따라 이자가 지연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코코본드 미상환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유사시 조기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ljh@

‘자금조달’ 판 키우는 하이브, 오버행 우려

4000억 CB·7000억 유증
대부분 지분 담보 자금조달
기업가치·지분희석 따져야

하이브가 1조 원대 자금조달과 5000억 원 규모 지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상장 후 아티카 인수에 이어 또 다른 신사업 구상이다. 다만 대규모 자금 조달 과정에서 CB(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의 방식이 활용돼 중장기적 ‘오버행(공급 과잉)’ 우려도 상존하게 됐다.

하이브는 4일 4000억 원 규모 3회차 CB 발행과 7000억 원 규모 제3차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CB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투자받고 유상증자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CB는 발행 조건이 하이브 측에 무척 유리하다. 우선 표면이자 0%, 만기이자 0%로 ‘무이자’다. 전환권 청구는 내년 11월 5일부터 가능하다. 또, 발행 분량 중 33%에 대해서는 전환 청구기간 동안 회사가 되사할 수 있는 ‘콜옵션(매도

청구권)’도 있다. 반대로 사채권자가 조기상환(뜻 읍센) 조항도 있지만, 3년 뒤인 2024년까지 11월 5일부터 행사 가능하다.

다만 이번 모집 자금이 모두 현금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이 중 5000억 원은 사실상 두나무와의 지분 스왑에 활용된다. 형식상으로는 CB발행 자금 4000억 원과 보유 현금 1000억 원으로 두나무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48%를 사온 후, 두나무로부터 7000억 원 규모 지분 투자를 받는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회사에 유입되는 현금만 6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이 자금 중 1000억 원은 기존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100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4000억 원은 M&A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이브는 이번 자금조달 관련 두나무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아티스트 IP와 NFT가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로운 합작법인을 통해 아티스트IP 기반의 콘텐츠와 상

품들이 팬들의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는 NFT 사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이브의 ‘판 키우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관상 CB발행 한도는 5000억 원으로 이번 발행에 한도가 거의 찼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알려진 바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주 입장에서선 선택이 복잡하다. 기업가치 상승과 지분 희석 중에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대부분 지분을 담보로 한다. 이번 4000억 원 규모 CB도 이자가 없기 때문에 100% 주식 전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오버행(공급 과잉)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가치가 지분희석 분보다 크다면 모두의 이익으로 이어지겠지만,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

박기영 기자 pgy@

‘주주가치 제고’ 꺼내든 KT&G

3400억 자사주 매입·배당 강화…3년간 2조7500억 ‘주주 환원’

KT&G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2조 75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펴기로 했다.

4일 KT&G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내외부 성장 투자비를 제외하고 기보유 현금 일부와 3년간 사업을 통해 만든 현금을 활용해 2조7500억 원 내외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꺼내는 카드는 ‘자사주 매입’이다. 이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사주매입은 주식 유통 물량을 줄이기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자사주매입 후 소각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KT&G는 자사주 보통주 410만 주를 3427억6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5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배당 정책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KT&G는 이익 성장 규모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동시에 배당

성향 50% 이상을 달성하는 배당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KT&G는 3년간 약 1조 7500억 원 내외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추정 규모를 감안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관한 주주환원 정책에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이날 KT&G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7%(1900원) 오른 8만5500원에 마감했다.

KT&G는 3분기에 연결기준 359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9.3% 늘었다. 매출액은 1조56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영업이익 4239억 원을 기록했다.

종속회사를 제외하면 KT&G는 별도기준 매출액 9304억 원, 영업이익 324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의 경우 국내외 NGP(유통형 전자담배) 판매 호조 및 부동산 사업(수원개발사업 등) 실적 증가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슈퍼개미 모십니다” CFD 마케팅 열을리는 증권사

증권가 CFD 서비스 잇단 도입
수수료 내리고 현금 이벤트도

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수료 인하부터 현금 퍼주기 이벤트까지, 자금력을 갖춘 ‘슈퍼개미’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유안타증권은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CFD 서비스를 도입한 증권사는 기존 10개사에서 11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KB증권, 한화투자증권도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CFD 서비스를 출시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 수수료를 각각 0.07%와 0.015%로 낮췄다. 메리츠증권의 CFD 거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자 비용이 없는 증거금 100% 계좌

도 도입하기도 했다.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증거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응증거금 서비스도 출시했다.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로 등록만 해도 현금을 제공한다. 거래 금액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CFD 서비스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증거금만 낸 상태에서 증권사 계정으로 주식을 대신 사고판 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매수, 매도가격 변동 폭을 이용하기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에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CFD 증거금물을 일치시켜 증권사 간 차별점이 사라지자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CFD 증거금을 최저한도를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에 그간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10

~30% 수준이던 증거금률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일제히 40%로 높아졌다.

CFD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점도 고객 유치 경쟁에 불을 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증권사 CFD 계좌 잔액은 4조28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말 1조 2713억 원과 비교해 약 3.4배 늘어난 수준이다. CFD 계좌를 가진 개인 투자자도 2019년 말 823명에서 올해 8월 말 4720명으로 늘었다.

위탁매매 평균수수료(0.05%) 대비 CFD 평균 수수료(0.7%)가 높은 점도 마케팅 열기를 높이는 요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게 CFD 서비스는 시장 성장 기대감 큰 곳이다. 거래 규모도 크고, 수수료도 위탁매매 대비 높다. 특히 CFD 서비스는 자산가 고객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안으로도 소개된다. 자산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인아 기자 ljh@

미래에셋證, 공모로 지점장 뽑는다

‘성과·전문성’ 중심 발탁 인사

미래에셋증권은 공모를 통해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젊은 인재를 지점장으로 11월 중 선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점장은 지점의 경영과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지점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정기 인사 시 공모를 통해 지점장을 선발하는 사례는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다.

이번 지점장 공모 선발은 미래에셋그룹이 최근 실시한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발탁 인사의 일환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지점장 선발은 이날부터 9일까지 사내 Open HR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점 경영 계획 평가와



온라인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우선 10명 이내를 지점장으로 발탁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존의 지점장 선발 방식은 상위 직책자에 의한 수직적 역량 평가와 직급 중심의 인사였다”며 “앞으로는 미래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젊은 인재 선발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객을 위한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삼성 ‘엑시노스’ 라인업 확대… AP시장 반전 노린다

중저가형 스마트폰 모델 대상
5나노 보급형 제품군 추가 전망
중화권 제조사 수요 흡수할 듯

연내 AMD와 프리미엄 제품 출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강인엽 삼성전자 사장(시스템LSI 사업부장)이 ‘엑시노스 2100’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5나노(1nm=10분의 1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보급형 제품군을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 연말엔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에 탑재될 프리미엄 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그간 부진했던 AP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명 IT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5nm로 제조되는 ‘엑시

노스 1280’ 모델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며 “‘엑시노스 1080보다 사양은 더 낮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엑시노스 1080은 5나노 공정으로 만든 삼성전자의 첫 번째 AP다. OVX(오포·비보·샤오미)로 대표되는 중화권 제조사 제조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AP 수요를 노리고

만든 제품이다.

만일 엑시노스 1080보다 더 낮은 사양의 제품이 나온다면, 삼성의 중저가형 모델은 물론 중화권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타 것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IT 전문매체 샘모바일도 해당 트윗을 인용하며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 중 대다수 제품이 퀄컴 혹은 미디어텍 AP를

쓰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 출시되는 삼성 모바일 기기엔 대부분 엑시노스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연말엔 업계 강자인 AMD와 손잡고 개발한 ‘엑시노스 2200’ 출시도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가칭)’ 시리즈에 탑재되는 제품이다.

특히 엑시노스 2200의 GPU는 현재 퀄컴 스냅드래곤 888에 들어간 퀄컴 아드레아노 GPU와 아이폰12에 탑재된 A14칩보다 앞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는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5나노 공정 엑시노스 시리즈 입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별도의 행사 없이 신제품을 내놔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엑시노스 1080, 엑시노스 2100 신제품 발표회를 연달아 연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엑시노스 2100이 성능과 발열 문제가 불거지며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신제품 성적은 향후 엑시노스 시리즈의 향방을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 AP 시장에서 점유율 반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삼성은 AP 시장에서 15% 언저리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2분기 점유율은 7% 수준이었다.

프리미엄 제품군에선 애플과 퀄컴의 약진이 계속됐고, 중저가에선 미디어텍이 중화권 제조사 수요를 등에 업고 급속 성장한 영향이다.

다만 AP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내년 스마트폰 AP 시장 규모는 223억 달러(약 26조 3300억 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고급스러움 품은 최첨단 ‘미래 전기차’

타보니

제네시스 ‘GV60’
얼굴로 문 열고 지문으로 시동
‘크리스털 스피어’로 감성 더해

넓은 실내 탕 축간거리 3m 육박
한 번에 U턴 어려울 때도 있어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 고객 대부분은 경박스러운 변화를 거부한다. 미래를 위한 전기차와 럭셔리는 그만큼 공존이 어렵기도 하다.

제네시스 제품군에 합류한 GV60은 뒤섞이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한데 담았다.

지난 3일 경기도 하남에서 치러진 미디어 시승행사에 도착하니 수십 대의 GV60이 코끝을 맞추고 늘어서 있었다.

실제로 바라본 GV60은 다소 낯설면서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이미지가 ‘오버랩’된다. 세 모델 모두 하나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밑그림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몇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4개의 바

퀴가 4곳의 모서리로 돌진해 있다. E-GMP의 특징이다. 여기에 성능보다 편안함을 추구한 ‘미쉐린 파일런 투어’ 타이어도 크기(21인치)를 마음껏 키웠다. 차체도 우람하지만 휠 타이어도 이에 걸맞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묵직한 운전석 도어를 열면 광활한 실내가 눈앞에 펼쳐진다. 밑그림은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유사하되 곳곳에 ‘제네시스’다음이 묻어난다

이 시대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모조리 쏟아냈다. 앞뒤 도어가 만나는 곳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숨겼고, 기어박스 앞쪽에는 작은 지문 인식 패드까지 심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는 ‘크리스털 스피어’가 명물이다. 시동을 걸기 전, 동그란 반구(半球) 형태의 수정 볼(Ball)은 시동을 걸면 짹짹 뒤집히면서 변속 다이얼로 바뀐다.

시승 코스는 왕복 60여km. 고속도로와 굽이치는 국도가 뒤섞여 있다. 모터 출력은 360kW(퍼포먼스 AWD 기준)다. 내연기관의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480마력에 달한다.

여기에 운전대에 달린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500마력에 육박하는 힘을 단박에 쏟아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고작 4.0초 만에 달릴 수도 있다. 차고 넘치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68km에 달한다.

운전대와 서스펜션은 묵직하고 우아하다. 이와 달리 가속페달은 즉답형. 발끝에 살짝만 힘을 실어도 차는 전방을 향해 폭발적으로 ‘발사’된다. 짜릿하지만 당황스러운 점도 있다. 축간거리가 3m에 육박하다 보니 중앙선에 붙어 단박에 U턴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넉넉한 실내공간을 얻는 대신 감당해야 할 단점이다.

제네시스를 2대째 타고 있는 기자의 눈에 GV60은 여러 면에서 합격점을 줄 만하다. 어색했던 첫인상은 금세 사라졌고 가장 진보한 제네시스라는 이름에 모자람이 없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 NFT 스타트업 투자 ‘광폭행보’

크리켓 NFT ‘페이스’ 펀딩 참여
디지털 자산 주도권 확보 속도전

삼성전자가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스타트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 시장 내 가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NFT 분야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모양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다.

4일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페이스(Faze)’가 모집한 1740만 달러(약 205억원) 규모의 시드펀딩(seed funding)에

참여했다.

인도 뭍바이에 위치한 페이스는 크리켓을 위한 메타버스 구축을 목표로 올해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페이스는 국제크리켓 연맹(ICC)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크리켓 NFT를 만들었다. 크리켓 팬이라면 NFT를 통해 좋아하는 크리켓 선수의 사진이나 영상 등 디지털자산을 수집 및 교환할 수 있다. 특히 역사상 중요한 순간을 담은 영상 등 희귀 NFT를 보유할 경우, 이를 통해 결승전 VIP 관람 및 실제 선수들과 교류도 할 수 있다.

크리켓은 우리나라에선 생소할 수 있지만, 국제크리켓연맹(ICC) 회원국 105개를 보유한 인기 글로벌 스포츠다.

전날 삼성넥스트는 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 ‘더샌드박스’가 모집한 9300만 달러(약 11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에도 참여했다.

더 샌드박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가상 게임 경험의 구축과 보유, 수익화를 지원하는 NFT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NFT를 발행하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플레이 투 언(play-to-earn, p2e)’ 모델을 사용해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삼성넥스트는 지난 3월 NTF 거래 플랫폼 업체 슈퍼레이어를 시작으로 NFT 게임 개발사 대퍼랩스, 블록체인·NTF 개발업체 알케미 등에도 투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제품과 TV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NFT 시장 성장에 따라 삼성 제품 역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엔솔 ‘글로벌 사회적 책임 협의회’ 첫 가입

배터리 공급망 ‘ESG 평가’ 강화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회사 중 최초로 글로벌 협의회 ‘RBA’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RBA란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산업 협의체다. 애플을 비롯해 구글, 폭스바겐, 테슬라 등 18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가입으로 노동,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등 RBA가 제안하는 5개 분야의 글로벌 행동 규범을 기업 경영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국내·

외 사업장과 협력사까지 RBA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은 RBA의 산하 협의체인 RLI, RMI에도 가입했다.

RLI는 인권 존중·다양성 확보 등이 목적인 협의체이며 RMI는 기업의 책임 있는 광물 조달과 공급망 관리가 목적인 협의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가입으로 에너지 선도기업으로서 공급망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관리를 글로벌 기준으로 강화해 ESG 경영을 함과 동시에 인권 다양성 중시와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통해 업계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문재인(왼쪽 네 번째) 대통령과 최태원(세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부다페스트홀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SK온-KERI, 배터리 안전 극대화 ‘맞손’

SK온은한국전기연구원(KERI)과리튬이온배터리의안전성을극대화하는기술과표준을만들기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중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원장과 지동섭 SK온 대표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배터리 △성능 △신뢰성 △안전성 등 분야에서 면밀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진보한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협력한다.

양측은 우선 배터리 화재 원인별로 구체적인 발생 조건을 찾기 위해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 셀에

이물질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물질 종류와 양에 따른 발화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 환경을 가정해 불이 붙는 조건을 연구한다. 이렇게 도출한 실험값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초격차’ 기술 개발에 나선다. SK온은또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내부 품질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실제 전기차 주행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혹한 배터리 품질 테스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와 더불어 향후 배터리 국제표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간부’ 내세워 망 사용료 안 내겠다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산업 축소시켜
인터넷사업자와 대가 협상은
셋톱박스 비용 등 다른 얘기
‘오징어게임’ 수익 나눌 것”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한국 콘텐츠 제작자·인터넷사업자(ISP)와의 ‘간부’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 기자회견담회에서 “넷플릭스가 한국 외 다른 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내지 않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 기자회견담회를 하고 있다.

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SP와의 파트너십은 셋톱박스 비용 등 다른 사업적, 상업적 분야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망 사용료라는 개념을 다른 국가에서 고려한 적 있지만, 이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망 사용료가 산업을 축소하고 반경쟁적이란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대신 ‘원인’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다양한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 KT 등 ISP와 협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OTT 사업자를 비롯해 한국 CP는 법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 다만 한국 ISP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협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현지 CP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ISP와 나름의 협업을 통해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OCA)’를 거듭

강조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일부 콘텐츠 제공자(CP)는 CDN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는 차원에서 1조 원가량을 투입해 OCA를 만들었다”며 “OCA를 통해 전 세계 많은 ISP가 지난 한 해 동안 1조4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제작사 등 한국 창작자들과 수익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도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이 시리즈를 만드는 데 함께한 많은 사람과 수익을 어느정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창작자가 만들어낸 성공은 과거엔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성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진행할지는 향후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부를 연달아 만난 가필드 부사

장은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법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한국의 입법·사법 절차를 존중한다”고 했다. 또한 문제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사용료에 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SKB)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나서 솔직히 대화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SKB 측은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제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른 아닌 넷플릭스”라며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확진자 급증에 소상공인 긴장

일상회복 중단 우려... “보상금 턱없이 낮다” 불만 속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숭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돌입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확진자가 폭증하면 자칫 ‘긴급멈춤’으로 전환해 그간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등 44만8824명에게 1조2674억6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지원금액(1조8000억 원)의 72.2%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신속보상 대상업체는 62곳으로 48만7186곳이 지급신청을 완료했고, 그 가운데 45만 개에 육박하는 업체가 받았다.

하지만 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뒤 집합금지, 영업제한 속에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켰지만, 손실보상금 10만 원

을 책정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0만 원은 손실보상금 최하 액수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키웠던 위드 코로나의 ‘일시정지’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82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전날(2667명)보다는 적지만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속에서 이틀째 20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 뒤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더라도 중환자실·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일상 회복 나흘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자 예상보다 빨리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긴급하게 중단할 경우 사적 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하면 소상공인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경제 침체 등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10주년’ 넥슨커뮤니케이션즈, 장애인 고용창출 힘써

직원 중 47%가 장애인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도

게임업계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넥슨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회사는 그동안 활발한 장애인 채용과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온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넥슨커뮤니케이션즈는 2011년 설립 이후 장애 유형과 성별에 구분 없이 폭넓은 채용을 진행하며 게임업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현재 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7%에 해당하는 36명의 직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36명 중 중증 장애인 비율은 약 62%에 달한다.

넥슨커뮤니케이션즈는 취업 의지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채용 커뮤니티 및 기관을 통해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려고, 지속해서 업무 영역을 개발하고 확대했다.

넥슨커뮤니케이션즈는 이러한 고용 창출 노력을 바탕으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넥슨커뮤니케이션즈가 장애인 채용과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사진제공 넥슨커뮤니케이션즈

국무총리 표창을, 2016년 부산시청으로부터 장애인 취업지원 기업체 대표와 유공자 표창 수상 및 2018년 장애인의 날 기념 부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넥슨커뮤니케이션즈는 휠체어 이용 직원들을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외에도 사무실 전 구간에서 턱을 없애고, 자동문, 핸드레일, 시각장애인용 블록을 설치하는 등 직원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도 적극적이다. 자체 인식개선 TF를 구성, 장애 직원과 비

장애 직원이 하나가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장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원석 넥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지난 10년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구글, 앱 3자결제 허용...이용자·개발자에 선택권 제공

구글이 앱 내에서 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월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이 앱 내에서 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월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

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월슨 화이트 총괄은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LG U+ ‘물리적 복제방지’ 초소형 eSIM 개발

복제방지·가입자 인증 하나로
웨어러블 기기·차량용 등 활용

LG유플러스는 ICTK 홀딩스와 손잡고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PUF)’을 적용한 초소형 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eSIM)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는 망 접속 시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품질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로 약속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을 위해 스마트폰 등 일반적인 디바이스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 유심(USIM)을 사용한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eSIM을 장착하는 추



세다.

이번에 개발한 PUF-eSIM은 제조 공정에서 물리적으로 생성되는 반도체의 미세구조 차이를 이용해 복제나 변경이 불가능한 일명 ‘반도체 지문’을 활용했다. 보안을 강화하는 PUF기술과 가입자 인증 기능을 하나의 칩세트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PUF-eSIM이 인증기와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LTE망 접속 시 가입자 인증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부팅 시 위·변조된 펌웨어 실행 차단, 디바이스-서버 간 E2E 보안 통신 강화에 사용될 수 있다.

작은 크기도 PUF-eSIM의 장점이 다. PUF-eSIM의 크기는 6㎜(가로 2㎜ x 세로 3㎜)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나노 유심의 18분의 1 수준이다. 작은 크기 덕분에 웨어러블·산업용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화전자부품협회의 AEC-Q100인증도 획득해 차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드도, 혜택도 오직, 팬만 생각했다 위버스 신한카드



팬을 위한 모든 순간 위버스 신한카드

지금 바로 위버스샵과 신한카드에서 신청하세요

| 위버스샵 이용금액 4% 위버스샵 캐시 추가적립 • 생활영역 이용금액 10% 위버스샵 캐시 적립 • HYBE INSIGHT 내 매장 결제 50% 할인 • 연 1회 Gift 서비스 |

※ 연회비: 체크 없음 국내전용해외겸용(AMEX) 3만 5천원 - 계약체결 전 카드상품 이용조건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 법정최고금리(20%) 이내에서 적용)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반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2b-09444호(2021.10.29~2022.10.28)

BTS



SEVENTEEN



+OMORROW
X
+TOGETHER



ENHYPEN



1Lead by 신한카드

김장비용 급등... 유통街, 할인행사로 ‘주부 시름’ 던다

김장철을 앞두고 관련 물가가 치솟으며 주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유통가에서는 고민 해결을 위해 관련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김장키트를 내놓는 등 김장철 시장 선점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 10kg, 깐마늘 20kg 도매가는 지난 2일 기준 8343원, 15만6833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39%, 14%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쪽파 1kg당 도매가 역시 같은 기간 7932원으로 36% 비싸졌고, 굵은 소금(5kg)과 새우젓(1kg)도 소매가격이 각각 32%, 7% 올랐다.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건 자연 재해, 병해 등으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총 117만5000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 8% 줄었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배추 뿌리와 밑동이 썩는 무름병이 잦아와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인데다 10월 때 이른 한파로 인해 강원, 고산 배추 산지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배면적도 1만1893ha로 평년 대비

배추 39%·깐마늘 14% 오르고
쪽파 36%·굵은소금 22% 폭등

롯데마트, 해남산 배추 확보
절임배추 사전예약 1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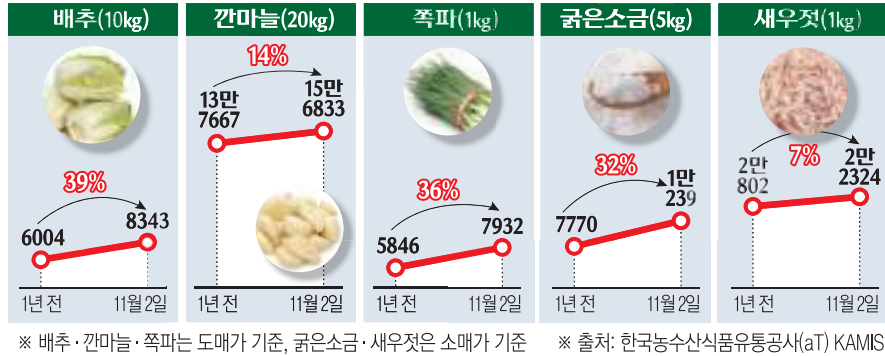
현대百貨, 1~2인 가구 김장키트
‘딤채원 알뜰세트’ 판매 시작

7.1% 감소했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지난 8월 장마, 지난달 고온으로 강원, 충청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 병해가 증가해 작황이 평년 대비 부진했다”면서 “이달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10kg당 7000원으로 평년 대비 10% 가까이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올해 김장철 비용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유통가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소비자들의 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는 물량 확보로 가격 안정화에 힘쓴다.

롯데마트는 산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해남산 배추 물량을 사전 확보해 전년

주요 김장재료 가격추이 (단위: 원)



※ 배추·깐마늘·쪽파는 도매가 기준, 굵은소금·새우젓은 소매가 기준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MIS

대비 절임배추 사전예약 물량을 125% 늘린다. 또한 국내 무 주요 산지인 고창, 영암 산지의 무 역시 전년 대비 물량을 72% 늘려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다양한 김장채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온에서도 4일 ‘김장하기 좋은 날’ 행사를 통해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젓갈, 김장양품 등을 최대 15% 할인 판매하고 이마트는 절임배추 물량을 지난해(1만 박스)의 3.5배에 달하는 3만5000박스 준비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김장 물가가 부담스럽거나 김장을 소량만 하는 수요가 늘면서 김장 키트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9일부

터 내달 15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 식품관에서 1~2인 가구용 DIY 김장키트 ‘딤채원 알뜰세트’를 판매한다.

‘딤채원 알뜰세트’는 천일염을 사용해 절인 배추(5kg)와 무·양파·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양념소(2kg)로 구성돼, 간편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4만5000원으로 주문 3일 이후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수령 가능하며, 8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동원F&B의 ‘다반찬&’도 지난달 말부터 김장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국내산 가을배추에 국내산 소금을 사용한 김장키트로, 3~4인 가구에 적합한 용량이다. 푸드 플랫폼 ‘식탁이있는삶’ 역시 ‘2021 김장

기획전’을 내달 9일까지 진행하면서 김장키트 등의 제품을 선보인다. 100% 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했으며 배송 일자에 맞춰 싱싱한 배추를 절임, 세척, 손질 과정을 거쳐 배송한다. 밀키트처럼 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이 세트로 준비돼 있다. 김치양념만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배추, 소금, 무 등 김장에 사용되는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장 키트도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일일이 재료를 사다 직접 담그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김장키트가 확실히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홈쇼핑도 김장철 소비자 잡기에 나선다. 롯데홈쇼핑은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최유랴쇼’ 등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형 김치냉장고 단독 세일, 포장김치 등 김장 관련 상품을 집중 편성한 ‘대한민국 김장 대축제’ 특집전을 진행한다.

김덕영 롯데홈쇼핑 리빙부문장은 “올해 이른 추위를 고려해 예년보다 김장 특집을 앞당겨 진행하게 됐으며, 김장 물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인기 브랜드의 김장 관련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김혜지 기자 heyji@

SSG닷컴, PP센터 늘려 ‘쓱배송’ 확대

이마트 이천점 PP센터 확장
하루 최대 3000건 주문 처리
2025년까지 70여개 확대 예정

SSG닷컴이 PP(피킹&패킹)센터 확장을 통해 자체 당일 배송인 ‘쓱배송’ 확대에 나선다. 이는 온라인 스토어 ‘네오’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SSG닷컴은 9월 중순 리뉴얼 공사를 마친 이마트 이천점 PP센터의 시범운동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하루 최대 3000건의 온라인 주문 배송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P센터는 전국 110여개 이마트 매장을 활용한 SSG닷컴의 ‘온라인 물류 처리 공간’이다. 이 곳에서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Picking)’하고 ‘포장(Packing)’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각 PP센터의 규모에 따라 배송 가능 물량에 차이가 있으며, 하루 최소 200건에서 최대 3000건에 이르는 온라인 장보기 주문을 소화한다.

SSG닷컴은 늘어나는 온라인 장보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천점 PP센터처럼 하루 3000건 이상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PP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30개, 2025년까지 7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철민 SSG닷컴 SCM본부장은 “김포와 용인에 있는 온라인 스토어 ‘네오’가 쓱닷컴 물류의 ‘심장’ 과도 같다면, PP센터는 전국 17개 사·도 곳곳에 생필품을 쉼 없이 나르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2025년까지 대형 PP센터를 전70여개 이상 확보해 ‘쓱배송’, ‘새벽배송’을 포함 현재 하루 14만 건 수준인 온라인 장보기 배송 물량을 최대 36만 건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뉴얼 오픈한 이천점 PP센터는 전체 면적 1190㎡(약 360평)로, 규모를 이전보다 16배나 확장했다.

내부에는 ‘자동화 소터’와 ‘DAS(Digital Assorting System)’ 등 최첨단 설비를 구축해 물류 효율을 높였다. 이 설비들은 ‘피커(집품 작업자)’가 상품을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되면서 ‘패커(포장 작업자)’에게 이동해 사람은 정해진 위치

에서 맡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선별에 최적화된 ‘DPS(Digital Picking System)’는 물론, 132㎡(약 80평) 규모의 콜드체인 시설을 마련해 상품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적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간이 넓어지고 자동화 설비까지 갖춰지면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50여 일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천점 PP센터의 작업자 1인당 생산성은 일반 PP센터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주문 건수도 리뉴얼 이전 최대 450건에서 3000건까지 6배 이상 늘었다.

현재 SSG닷컴이 운영하는 대형 규모의 PP센터는 ‘E.OS(Emart Online Store) 창계전점’을 비롯해 ‘이마트 월계점 PP센터’, ‘이마트 가든파라다임점 PP센터’, ‘이마트 신도림점 PP센터’에 이어 ‘이마트 이천점 PP센터’까지 총 다섯 곳이다. 12월까지 ‘이마트 평택점, 만촌점 PP센터’도 리뉴얼을 마치고 대형 PP센터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달콤한 겨울 복숭아 드세요”

현대백화점은 7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전 점포 식품관에서 겨울이 제철인 ‘H스위트 겨울 복숭아’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H스위트 겨울 복숭아는 평균 17~18브릭스의 고당도 복숭아로, 10월부터 수확하는 게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2만8000원(2입팩)부터 3만 2000원(5입팩)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도시락 팔고 물건 받고 ‘이색 무인시스템’ 등장

코로나 비대면 시대 발맞춰

빨래방, 편의점에 이어 구내식당과 패스트푸드점까지 무인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인시스템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워홈은 구내식당 내 테이크아웃 전용 24시간 무인 판매 플랫폼 ‘픽앤조이(Pick n Joy)’를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픽앤조이’는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된 무인 판매 플랫폼으로 당일 구내식당에서 직접 제조한 샐러드, 도시락 등을 테이크아웃 형태로 판매한다. 또 국·탕·찌개·떡볶이 등 가정간편식(HMR)과 함께 파스타, 감바스, 샤브샤브 등 밀키트도 판매한다.

아워홈은 픽앤조이가 24시간 운영 가능해 구내식당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식사를 즐길 수 있어 기업이나 학교의 기숙사나 공유오피스 등에서 호응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워홈은 6월 무인 자판기 ‘헬로잇박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헬로잇박스는 즉석도

시락과 스낵, 음료 등 간식을 판매한다.

일찌감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도입한 롯데GRS의 롯데리아는 최근 무인 픽업 시스템을 도입했다. 롯데리아 선릉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무인 픽업 시스템은 제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대면 과정을 생략한 무인화로 운영된다.

선릉점은 매장 주문과 배달 주문의 픽업 공간을 분리 운영 중이다. 롯데리아 무인 픽업함은 무인 주문기기를 통해 주문한 후 발급되는 영수증 하단의 바코드를 인증하면 수령할 수 있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선릉점에 도입한 무인 픽업 신규 서비스 도입 이후 매장 카운터의 완전 비대면 운영과 향후 매장 출입 없이도 제품 픽업이 가능한 매장 외부 무인 픽업 시스템 등 푸드테크를 활용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색 무인시스템도 등장했다. 이마트는 9월 이마트 성수점에 티셔츠 무인 자판기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편집숍인 ‘발란사’와 협업한 티셔츠를 자판기로 판매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정용진 ‘부캐’ 빵집 제이릴라 문 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부캐’로 알려진 ‘제이릴라’를 앞세운 빵집이 문을 열었다. 앞서 정 부회장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빵, 제이릴라 게시물을 올리며 빵집 오픈을 예고한 바 있다.〈사진〉

신세계푸드는 미래형 베이커리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UNIVERSE BY JRILLA)’를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SSG푸드마켓 1층에 콘셉트스토어로 문을 여는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는 신세계푸드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연구개발 역량에 ‘제이릴라’의 세계관을 접목해 선보이는 식스 스타(6-Star) 베이커리다.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 매장은 제이

릴라가 주인공인 우주가 주 콘셉트다. 매장 인테리어도 고객이 거대한 우주선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콘셉트가 적용된다. LG전자와 손잡고 만든 ‘올레드 월(OLED Wall)’에서는 몽환적인 분위기로 표현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 매장이 현실 세계와 우주 세계를 넘나드는 커넥팅 공간이라는 의미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매장에는 오로라 베이글, 빵 드 캘리포니아 등 우주와 태양계 행성을 모티브로 삼은 60여 종의 이색적인 빵 메뉴가 구비됐다. 특히 수성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썬 뿌디 무스 케이크 ‘머큐리 크리시’는 화



이트 초콜릿과 라임의 조화로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마블 쇼콜라’는 보랏빛 은하수의 화려함을 가득 담은 초콜릿 케이크로 묵직한 초콜릿의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푸드 콘텐츠&테크놀로지 크리에이터’라는 신세계푸드의 미래 비전에 맞춰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대출규제 전 서두르자” 달아오른 연말 청약시장

운정신도시 경쟁률 최대 273대 1
‘미분양 속얹이’ 대구 1순위 마감
중대형 오피스텔도 실수요 몰려
“집값 오른 상태… 청약수요 늘 것”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 등이 힘들어지는 내년 전에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시장에 그야말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광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개인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면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이에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 시행 전에 나오는 신규 단지 청약에 목을 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2일 경기 파주시 다율동에서 분양한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최고 27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D㎡형에는 86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 기준 1867명이 청약통

정부의 개인별 DSR 규제 계획		※ 분양일은 1순위 기준		정부의 개인별 DSR 규제 계획	
				1단계 올해 7월 부동산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적용	
단지명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단지명 시지 센트레빌		2단계 내년 1월부터 1단계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대출자에 적용	
위치	경기 파주시 다율동 23-1	위치	대구 수성구 시지동	3단계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적용	
분양일	11월 2일	분양일	10월 26일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 원이면 DSR은 40%.	
면적(경쟁률)	84㎡D(279대 1)	면적(경쟁률)	78㎡(4대 1), 84㎡(25.8대 1)		
비고	7월 운정신도시 분양단지 경쟁률 96대 1	비고	대출규제 발표 일주일 전 수성구 내 분양단지 '미달'		

장을 던졌다. 전용 84㎡형 다른 유형도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지난 7월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전용 84㎡형 기준 최고 경쟁률은 96대 1에 달했다. 당시 전용 84A㎡형 67가구 모집에 646명(1순위 해당지역 기준)이 청약통장을 던진 것과 비교하면 이번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에 약 세 배가량 청약자가 더 몰린 셈이다.

수도권 최외곽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 동두천시에도 청약자가 몰렸다. 2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들어서는 ‘동두천 중앙역 엘

크루 더퍼스트’ 1순위 청약에는 28가구 모집에 총 110명이 접수했다. 최고 경쟁률 6.13대 1로 마감됐다. 지행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이 단지는 동두천 안에서도 구도심이고 168가구 규모로 작은 단지라 인기가 없을 줄 알았다”며 “청약자가 몰린 걸 보면 실수요자들이 찬밥 더운밥 안 가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출 규제 발표 직후에는 미분양이 속출했던 대구에서도 1순위 마감 단지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분양한 ‘시지 센트레빌’은 1순위에

서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같은 달 21일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수성 레이크 우방아 이유셀’은 한 평형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됐다. 일주일 만에 대출 규제 시행으로 청약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아예 대출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 청약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텔’ (주거형 오피스텔)에 청약자가 쏠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들어서는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전용 78㎡형이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의 청약자를 끌어모았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12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최고 9억871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 역시 12만 명이 청약 접수에 나서 13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대출 규제가 연말 청약 광풍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내년부터 DSR 규제를 시행해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청약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했다. 잔금 대출 역시 올해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쳐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는 더 어려워진 만큼 청약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1기 신도시’ 산본 리모델링 바람

수도권 1기 신도시인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거세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군포시 금정동 무궁화주공1단지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를 66.7%를 달성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조만간 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군포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무궁화주공1단지는 특주공7단지, 울곡주공3단지, 개나리주공13단지에 이어 산본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네 번째 단지가 된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1992년 지어진 아파트로 15개 동, 총 1329가구로 이뤄졌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19개 동, 1528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들어서는 금정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원광대병원, 이마트, CGV, 뉴코아아울렛, 롯데퍼트인

산본신도시 무궁화주공1단지 위치도



‘무궁화주공1’ 주민 66.7% 동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요건 충족
‘을지삼익한일’ ‘금강주공9’ 등 인근 단지들도 사업 추진 박차

등도 있어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산본동 을지삼익한일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비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인근 금강주공9단지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이다.

현재 41%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동 설악주공8단지도 리모델링 조합 결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밖에 세종주공6단지, 충무주공2단지, 퇴계주공3단지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산본동 M공인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아파트들은 지은지 30년이 넘는 노후 단지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선회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산본신도시 일대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달 산본신도시 일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성장극에 주택정책과를 신설하고 산하에 리모델링지원팀을 만들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 리모델링 등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3인 가구 기준 965만 원〉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

15일부터 신흥 특공 30% 추첨
부동산 가액 3.3억 넘으면 안돼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흥부부 등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신흥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신흥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흥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금수저 특공’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전 각각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대를 반영해 신흥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추첨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전국 집값 주춤한데… 다시 들쭉이는 제주

올해 상승률 17.97% ‘전국 3위’
‘노형 2차 아이파크’ 84㎡ 12억
두 달 새 호가 2억8000만원 경중

제주시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노형동 ‘노형 2차 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은 12억 원을 호가한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지난 9월 9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두 달 새 2억8000만 원 오른 셈이다.

지난달 8억5000만 원에 팔렸던 제주시 아라일동 ‘아라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 84㎡형 현재 최고 호가는 10억 원이다. 한 달 새 1억5000만 원 올랐다.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와 대출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지만, 제주시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제주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3% 올랐다. 제주시 아파트값은 10월 4일 0.30%에서 11월 0.28%로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가 18일 0.29%, 25일 0.33% 등 2주 연속 오름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제주시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97%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인천(20.18%), 경기(18.89%)에 이어 3위다.

노형동 S공인중개 관계자는 “지금은 그나마 더디게 오르는 편”이라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1000만 원 이상 오른 단지도 많았다”고 전했다.

아파트 매수세도 강하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매수자 우위지수는 120을 기록했다. 0

~200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수록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라일동 A공인중개 관계자는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는 여전히 많아 신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청약 열기가 뜨겁다. 지난달 2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한화 포레나 제주중문’ 아파트는 전체 169가구 모집에 731명을 끌어모았다. 평균 경쟁률은 4.33대 1, 최고 경쟁률은 23대 1(전용면적 110㎡형)에 달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제주는 개발 호재도 많고 비규제지역이라는 투자 매력도 지니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더 달아올를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순항 중”

뫼시장 취임 후 8만 가구 진행
“2030년까지 80만 가구 목표”

서울시가 주택 약 8만 호의 공급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이 순항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 호 물량의 진행 단계는 △경비계획 수립 단계 1만7000호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호 △착공 및 준공 1만7000호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 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

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공급이 막혀있던 8만 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2030년까지 80만 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잇단 비위 의혹에도 영전·승진… 교육부 ‘모럴 해저드’

지방 부교육감 등 방역수칙·청탁금지법 위반 골프모임
충남대 특감 교육부 “의혹으로는 승진 대상자 배제 못해”
정경희 의원 “부실·부적합 인사시스템 전반적 개혁 필요”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지급이 적발된 건으로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참조
특히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영전·승진 인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달 중 지방의 부교육감 A 씨와 모 대학 서기관 B 씨에 대해 지난 5월 방역 수

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골프모임 의혹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비위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해 공론화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A, B 씨는 충남대 재직 당시 해당 대학 직원 20여 명, 지역 은행 관계자 단체로 골프모임을 가졌다.
이들의 일탈 행위는 지난 5월 한 지역 방송에서 ‘충남대 교직원 22명 ‘단체 골프’… ‘진상조사 착수’ 보도로 일부 알려졌다. 당시 이진숙 총장은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골

프모임에 참석했던 B 씨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B 씨는 해당 골프동호회 회장으로 A 씨와 함께 골프를 친 당사자”라며 “이는 일종의 ‘셀프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A, B 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영전·승진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인사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의 영전 인사(7월)와 B 씨의 승진 인사(10월)가 지역 방송사의 보도와 충남대 자체조사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인사 대상자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언론을 통해 충남대 골프모임 관련 의혹이 이미 전국에 알려졌는데(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를 알면서도 해당 인물들의 비위를 묵인하고 승진과 영전시

킨 셈”이라며 “이러한 부실하고 부적합한 교육부의 인사와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골프 모임 관련 지적이 나오기 전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는 있었다”며 “방역수칙,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관계자 등 충남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이달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전보 인사에 대해 “(충남대) 내부에서 (A 씨 등) 직원끼리 갈등이 있어 수평 이동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권익위 적발 건으로 교육부의 학생지도비 감사 중 지방의 부교육감으로 이동했다. A 씨의 경우 전보 인사이지만 해당 직책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영전 인사로 인식된다. B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감사 중에 승진했다.
교육부 정기인사는 1월과 7월 한 해 두

번 이뤄진다. 고위공무원 인사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기도 한다.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실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사안만 가지고 승진 등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없다”면서 “충남대 특정감사 건은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모든 인사를 제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후 관련 의혹이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비위 사실의 정도를 살펴 보고 여러 가지 징계처분 수위에 따라 사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관련) 조사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B 씨는 “골프 관련 모임을 했을 때 방역 수칙 등을 잘 지키려 노력했는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정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가을에 물든 인천대공원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 색색으로 물든 단풍과 길거리를 가득 메운 낙엽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만배·남욱 구속 檢 대장동 ‘윗선’ 정조준

유동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록서
압색 직전 정진상과의 통화 확인
계좌 추적 등 추가 증거 확보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 관리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윗선’ 수사에 동력을 확보했다.
광산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주변 관계자들은 물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록에서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 구속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을 받은 상황

에서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점으로 지목된 이 후보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탄탄해진 김만배 혐의 내용=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에만 의존해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고, 김 씨 측이 혐의를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김 씨의 배임 혐의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배임액은 ‘651억 원+α’로 바뀌었다. 김 씨와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사업자 선정, 배당 이익 설계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줄 수 있도록 공모한 정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들을 불러 추가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이재명 관여 여부=핵심 인물들의 구속으로 수사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가장 20일이다. ‘대장동 5인’의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은 짧은 기간 동안 ‘50억 클럽’ 등 의혹 주변의 법조인과 정치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
먼저 광산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뇌물로의 심한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취업한 뒤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김 씨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분 나름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희(화천대유)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는 대장동 사업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후보를 향한 가능성이 크다. 이수진 기자 abc123@

‘조개기 후원’ KT 임원 무더기 기소

구현모 대표 등 10명 약식기소
11.5억 원 상당 부외자금 조성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부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조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와 임원들이 약식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 형사제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KT 법인과 대관 담당 임원 4명을 정치자금법위반죄와업무상횡령죄로불구속기소하고 구대표를 비롯한 1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임원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1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했다.
상품권 할인이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권 대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이들은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상품권이 아닌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마련된 자금 중 총 4억 3790만 원을 임직원과 지인 등의 명의로 100~300만 원씩 금액을 나눈 뒤 99명의 여야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2016년 9월에 전사적인 차원에서 KT의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대외 업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해 KT의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기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해 2016년 9월부터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구 대표의 경우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담 경위 및 기부금액, 직책 등에 따라 가담 정도가 무거운 임원들은 입건 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임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황창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비자금, 회사 위해 쓰면 배임죄 아냐”

대법 “개인적 이익 도모 안 해”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했다라도 회사를 위해 썼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2년 “A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액된 공사비용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인 만큼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은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고, 구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했다”며 “비자금은 영업비용 외에 행사경비, 현장격려금 등으로 사용돼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소설 통해 ‘나’를 들여다봤지만… 외로움·허무 못 벗어”

시대가 낳은 소설가 김성동

긴긴 산중 살림을 정리하고 충주 시내 북판에 있는 아파트를 정처로 삼은 것도 아찔지 그답지 않지만, 술을 자못 꺼리는 기색 이야말로 이변이라면 이변이다. 마주 앉자마자 술부터 목으로 털어 넣는 게 김성동(75)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객이 들고 간 술병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6, 7년 만에 재회한 잡이다. 원연하기론 무자비한 세월이 그를 홀고 지난 뒷자리의 스산함이다. 백조 털처럼 희디흰 머리칼이야 개결한 느낌을 주지만, 눈빛에 실린 기운은 예전과 판판이다. 역병으로 취하고도 몽롱해지는 일 없이 시퍼렇던 눈빛에 이제 우수와 피로가 반반씩 얹혀 있다.

김성동은 시대가 낳은 소설가다. 시대를 대표할 지경으로 이름을 드날린 작가가기도 하지만, 질곡의 한 시대가 그를 문학의 바다에 밀어 넣었던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양친이 살았던 시대의 파랑이 그에게 가까이 엄습해 평생의 족쇄로 작용했다. 소설가가 되지 않았다면, 문학이라는 족쇄를 얻어 타지 않았다면 벗어나기 어려웠을 굴레였다.

“나 같은 출신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겠나? 줌독, 부랑아, 또는 알코올중독자로 전락하기 십상이었다. 나에겐 그나마 재능이라는 게 있어 타락하지 않고 소설가로 살아온 셈이다.”

김성동이 말하는 ‘출신’이란 실로 광기에 찬 시대의 산물이며 천형처럼 가혹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빨갱이’의 자식, 불온한 씨앗이었다.



빨갱이의 자식·불온한 씨앗 딱지 연좌제에 묶인 삶 ‘평생 족쇄’로 절밥 얻어먹고 살다 소설가 등단 장편소설 ‘만다라’ ‘국수’ 등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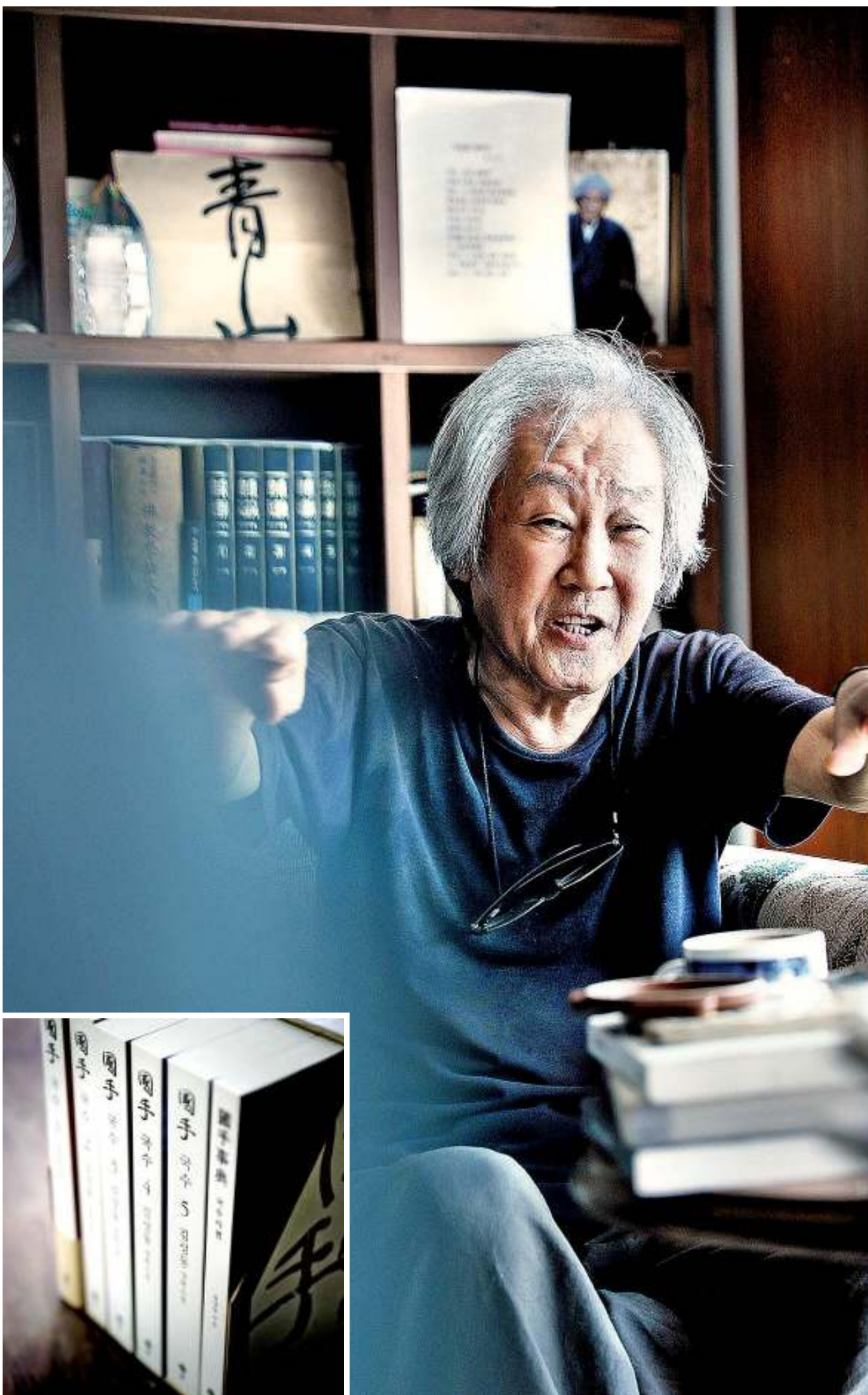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때 좌익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는 한국전쟁 와중에 처형됐고, 남편의 이념과 이상을 공유했던 어머니 역시 지역의 여성동맹 위원장으로 활동한 죄목으로 옥살이를 했다. 할아버지와 큰삼촌 역시 좌익 간부였다.

“연좌제에 묶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다.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없었고, 군인이 되더라도 장교가 될 수 없었으며, 사법고시에 불을 경우에도 임용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게 연좌제에 따른 ‘삼불(三不)의 달’이다. 출세를 꿈꾸기는커녕 당장의 호구지책이 막막했지. 그래 고3 때 출가해 절밥을 얻어먹고 살았다. 절 아니고는 갈 곳이 없었고, 중 아니고는 할 짓이 없었던 거다.”

-승려 생활을 하다가 소설가로 등단했다. 장편 ‘만다라’로 문단과 대중을 사로잡은 것 같다

“세상에서 박수를 치더라고. 돈과 명예도 얻었다. 이렇다 할 ‘쫄’을 가지지 힘들었던 나에게 소설가라는 ‘쫄’이 주어진 건 하나의 활로였다. 연좌제가 나를 문학으로 밀어 넣은 셈이다.”

-2018년엔 6권짜리 대하소설 ‘국수’(國手)를 출간해 저력을 과시했다. 자그마치 27년간의 집필을 통해 완간한 이 소설로 선생의 존재감이 새삼 부각됐다. ‘국수’를 완간한 감회가 각별했겠다



“일을 좀 해냈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꼈다. 미심쩍긴 하지만 비로소 말년에 소설을 좀 썼다는 기분, 그런 거.”

-무엇이 미심쩍었나

“제대로 된 소설이 아니라는 얘기가. 원래 15권으로 완성을 보려 했으나 미완에 그쳤으니까. 한 시대의 뒤안길에서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장강대하로 펼치고자 한 의도에 미달한 작품이라 만족할 수 없었다. 그보다 아쉬운 건 순수한 조선말을 더 많이 찾아내 문장에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수’를 완독한 평론가가 있을까

‘국수’는 조선 말엽의 정치사회적 격변을 민중사적 관점으로 세밀하게 풀어헤친 작품이다. 세월 따라 허공으로 흩어진 전통사회의 토속어들을 푸짐하게 되살려내기도 했다.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이 지독한 집념으로 수집한 조선말을 문장에 대대적

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국수’가 가진 정체성의 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 손에 든 책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사기도 했다.

-나는 김성동 소설의 애호가지만 ‘국수’를 다 읽지 못했다. 조선말들의 도도한 행진에 질려서다. 오염되지 않은 순정한 토속어들은 아름답고 고귀하지만 소화하기 어렵더라. 평단의 반응은 어땠나

“반응? 평론? 그런 거 거의 없었다. 평론은 고사하고 ‘국수’를 완독한 평론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순수한 우리말들 앞에서 다들 그냥 나가떨어진 것 같다.”

-쉽게 읽히면서도 재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선 독자들의 환심을 사기 어려운 게 요즘의 독서 시장이다. 조선말을 과도하게 구사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

“전혀! 조선말에 관한 나의 관심은 신앙에 가까운 정도다. ‘절레절레’라는 조선

말의 뜻을 아나? ‘모내기철’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조상들이야말로 타고난 시인이었다.”

-작가라면 다들 개성을 돋우기 위해 방울방울 피를 뿜듯이 글을 쓴다. 한국 작가들의 소설 품질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만의 빛깔을 내는 작가가 드물더라. 하나같이 영어나 일본어 번역체 문장에 길들여져 개성을 느끼기 어렵다. 저자의 이름을 가리고 작품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쓴 소설처럼 문제가 다 똑같더라고. 문장 한 줄만 읽고도 누구의 작품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문제를 구사하는 작가가 하나라도 있단가?”

연좌제와 사찰이 글 쓸 힘을 추동해 내가 아는 김성동은 소설이라는 기저질환을 앓는 이다. 온몸으로 소설의 현(鉉)을 탄주하는 인물이다. 소설이 써지지 않으면 마치 지구에 빙하기가 도래한 듯 몸

을 떨며 절규하고, 낄뻐를 지새워 술을 마시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작품에 사무쳐 각혈과도 같은 낄뻐를 토하기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다.

그의 술타령은 과도해 징그러운 구석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순정한 문학정신엔 경이로웠다. 그런데 이제 소설을 손에서 놓았나? 75세란 물러설 나이? 그가 말하길 “힘이 빠져 소설을 쓸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게 아닌가.

단 한 줄만 읽고도 작가 알아보는 독특한 문체 국내서 찾기 어려워 쉽게 읽히는 대중적인 소설보다 아름다운 조선말로 글 쓰려 했다



“소설은 기운이 있어야 쓸 수 있다. 난 ‘국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다. 나이도 있고, 이제 일을 벌이기보다 정리하는 단계다. 절대적인 에너지를 갖고 소설에 몰입했던 시절은 저문 셈이다. 여전히 글을 쓰긴 한다. 소설 대신 역사 에세이를.”

-소설을 쓰지 않는 선생을 예상하지 못했다. 죽는 그날까지 펜을 잡을 기세에 충천했었으니까

“요즘 내가 평생 맛보지 못한 안도감을 느낀다. 왜냐고? 연좌제 사슬이 풀렸기 때문이다. 2년 전에 어머니가 타계하면서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사찰(査察)에서 비로소 해방됐거든. 어머니 작고 전에는 매달 한 번씩 기관원이 찾아왔었다. 그 공적라인이 사라지자 평온감이 몰려들더라고. 한 편으로는 서운하던데!”

-서운한 부분도 있었나

“난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평생 글 감옥에 갇혀 살았다. 목이 조여드는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소설을 썼거든. 사방팔방으로 꽁 막힌 윤패의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설이었으니까. 소설이 아니고선 살 수 없었다. 바퀴 말하자면 연좌제와 사찰이 나로 하여금 글 쓸 수 있는 힘을 추동시켰다고. 그런데 사찰이 끝나자 긴장감이 확 풀리더군. 이제 소설을 쓸 힘을 앗아간 요인이기도 하다.”

노년이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좋은 때다. 눈길은 순해지고, 적당한 둔감으로 인생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터인데, 김성동의 구름처럼 나른한 눈빛으로 보자면 그는 어느덧 바깥보다 안을 무심히 들여다보는 일에 익숙해졌나 보다.

맴판 언설을 예사로 쏟아냈던 그의 입에서는 이제 온순한 언어들만 대굴대굴 굴러 나온다. 이런 그를 여전히 기습하는 건 외로움, 또는 허무다.

“불경(佛經)은 가르치길 일체가 무상하니 집착을 놓으라 한다. 그러나 무슨 수로 집착에서, 욕망에서 벗어나겠나? 소설이라는 반성문을 통해 정작하게 나를 들여다보기를 거듭했지만 가벼워지기 어려웠다. 끈질기게 들러붙는 건 늘 외로움이라는 놈이었다. 실존의 고독, 이걸 어쩔 수 없는 화두다. 더 큰 덩어리에서 보면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보이는 것 없는 길 위에서 홀로 앓기. 인생사 그렇게 덧없더라는 얘기가.

글 / 박원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 / 브라보 마이 라이프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밤 11시, 해외주식 사고 싶은데 달러가 없다면?

환전 없이 바로 사는 KB증권 글로벌원마켓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매매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환전 없는
해외주식
시작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783호(2021년 10월 15일~2022년 10월 14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미국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051% 제비용 별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당일거래 가능국가: 미국, 홍콩, 일본

KB증권

“SK하이닉스와 손잡고 반도체 장비 국산화 도전”

‘사내벤처로 시작 창업 성공’ 임태화 알씨테크 대표

장비 업그레이드 장애 해결하려 ‘하이개라지’ 프로그램 지원
사물인터넷·시스템온칩 기반 새로운 형태 반도체 장비 구상

“앞으로도 SK하이닉스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가며 핵심 부품과 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겠습니다.”

종합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알씨테크(RC-Tech)’의 임태화 대표는 SK하이닉스 뉴스룸에 게시된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알씨테크는 2018년부터 SK하이닉스가 시행한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하이개라지(HiGarage)’를 통해 탄생한 9개 벤처기업 중 한 곳이다.

임 대표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반도체 생산기술 연구와 장비 국산화 업무를 담당했다.

창업 결심은 업무 중 느꼈던 ‘작은 불합리함’에서 싹텄다. 그는 “오랫동안 잘 사용 해왔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는 장비를 앞으로 기능 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졌다”며 “이를 직접 해결해 보기 위해 하이개라지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된 아이디어는 화학물질 대신 건식 세

척 방식으로 장비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드라이 클린(Dry Clean)’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 대표는 “SK하이닉스의 장비 담당 파트와 긴밀히 협업한 끝에 독자적인 기술로 해당 기능을 탑재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빠른 성과가 나온 덕에 알씨테크는 하이개라지 1기 중 가장 빨리 창업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도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봤다. 장비 투자 비용을 아끼고, 기존 방식으로 장비 세정 시 연간 수만 리터씩 소모되던 고순도 불산 구매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업 이후엔 반도체 부품과 장비 국산화에 도전 중이다. 특히 지능형 자동압력밸브와 항온조 등 일부 부품은 개발이 거의 완료돼 시제품이 제작된 상태로, 조만간 출시된다. 이러한 부품들은 일본과 독일



SK하이닉스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하이개라지’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임태화 알씨테크 대표는 “SK하이닉스와 협업 관계를 이어가며 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겠다”며 “사물인터넷과 시스템온칩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장비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SK하이닉스 뉴스룸

등 외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로 국산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임 대표는 사물인터넷(IoT)과 SoC(System on Chip)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 장비도 구상 중이다. 그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다음 모듈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장비를 개발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필요한 과제를 하나씩 수행해가고 있다”며 “현재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해 국책과제를 진행 중이고, 2023년부터

는 장비 개발에 대한 국책과제 수주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실제로 장비를 다뤄보고 기술을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구성원으로서 장비를 직접 다뤄볼 수 있었기에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었고, 하이개라지를 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최
철탑산업훈장에 문패출 대표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는 지난 2006년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 행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개최 됐으나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날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선 귀뚜라미 보일러용산판매 문패출(사진)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중일 박단난방 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온수온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한국선물포장 협회 박정희 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우리나라 보자기를 이용한 선물 포장으로 한국의 미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또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콘텐츠 마켓 및 브랜드 페스타에 3년 간 연속 후원해 한류 콘텐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바이든, 버지니아주지사 패배에
“선거 전에 예산안 통과됐으면...”

조바이든(사진)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지사 선거 패배의 원인을 예산안 통과 실패로 돌렸다.



3일(현지시간) ABC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예산안이) 선거일 전에 통과됐어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끝내기를 원한다”며 “그래서 본인은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이 통과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인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보수층과 트럼프 지지층의 표심을 바꿀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테리 매클리프(주지사 후보)를 실망시켰다”며 “만약 우리가 지난달 말까지 예산안을 확실하게 마쳤다면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예산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딕 더빈 상원 의원은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이번 경고는 행동하게 만들기 충분하며, 이제 우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정책 제안·토론·투표...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오픈

경제계 목소리 대변·국민 소통 강화, 정부에 건의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정식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국민이 경제이슈와 관련된 주장이나 의견을 제안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이트다. 소통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 등 SNS 계정을 통한 계정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단계 ‘제안하기’에서는 경제이슈 관련

본인의 생각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며, 같은 생각의 글에는 ‘공감’을 눌러 힘을 보태줄 수 있다. 공감수가 200이 넘는 안건들은 2단계인 ‘토론과 투표’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 플랫폼 참여자들은 각 안건에 대해 찬반을 투표하고 댓글로 토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수가 500을 넘고 찬성도 50% 이상이면 핵심 아젠다로 선정해, 3단계인 ‘참여결과’에서 대한상의가 답변을 한다. 대한상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대한상의가 공개한 소통플랫폼 홍보영상(사진)에서 최태원 회장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citizen@

롯데, 신격호 창업주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조은화 작곡 추모곡 초연...청년창업 13곳 선정 시상도

롯데는 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신격호 롯데 창업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인의 꿈과 도전, 열정을 기리는 기념음악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음악회 시작에 앞서 소개된 기념 영상에서는 경남 울주군 산골 마을의 한 소년이 성장해 자산 100조 원 대기업을 일궈내는 과정을 서정적인 영상미로 표현했다. 헌정 영상 음악은 창업주 생전 애청곡으로 알려진 가곡 ‘사월의 노래’를 가수 김현철 씨가 편곡했다. 음악회는 독일 한스아이스러 음대교수로 재직 중인 조은화 작곡가가 신격호 창업주를 주제로 작곡한 추모곡 초연으로 시작했다.

음악회는 국내 최정상 예술가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정치용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추모곡을 비롯한 괴테의 동명의 2개의 시를 음악화한 ‘고요한 바다와 행복한 항해’ 서곡 등을 연주했다.

한편, 롯데벤처스는 같은 날 롯데월드타워에서 청년창업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 스타트업 13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308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벤처스는 글로벌 경쟁력, 해외진출 의지,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 기준으로 대상(각 1억 원)



신동빈(왼쪽) 롯데 회장이 3일 송유덕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부터 창업주 회고록을 건네 받고 있다.

3곳, 우수상(각 2000만 원) 10곳을 선발했다. 롯데벤처스는 내년 1월 선발된 스타트업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직접 경험할 기회와 최대 25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버핏 오른팔’ 멍거의 중국 찬양

“미국보다 경제 호황 잘 다뤄...불황 기다리지 않고 개입”

워런 버핏의 오른팔로 알려진 억만장자 찰리 멍거(사진)가 미국보다 경제 호황을 잘 다룬다면서 중국을 찬양했다.

3일(현지시간) 멍거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멍거는 “중국은 큰 불황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중

간에 호황에 개입한다”며 “이런 점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현명하고 당연히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호황을 다루는데 더 똑똑하다는 사실은 나를 즐겁게 한다”면서 “어떤 면에선 우리보다 똑



공산주의식 경제 관리의 열렬한 팬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중국 정부가 앗트그룹을 통제하자 “옳은 일”이라며 정부 편을 들었고, 5

월 초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빈곤 해결은 중국이 지난 30년간 이룩한 놀라운 업적 중 하나”라며 칭송하기도 했다.

멍거는 중국의 인권 탄압과 권위주의에 대한 지적에는 “물론 나는 미국을 선호한다”며 “내가 미국 시스템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중국 시스템이 그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월 초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빈곤 해결은 중국이 지난 30년간 이룩한 놀라운 업적 중 하나”라며 칭송하기도 했다.

멍거는 중국의 인권 탄압과 권위주의에 대한 지적에는 “물론 나는 미국을 선호한다”며 “내가 미국 시스템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중국 시스템이 그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부음

▲금재연 씨 별세, 김계남 씨 남편상, 김기현(전 전자신문 대표이사)·철현(대구 아티스앤지 대표)·숙현·도현(경일산업 대표) 씨 부친상 = 3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특실 201호, 발인 5일 오전 10시 30분, 053-560-9571

▲오기탁 씨 별세, 오경희·진희(더클래식피아노원장)·성희(플라긴스디자인 대표)·동건(뱅크버패밀리레스토랑 대표)·승희 씨 부친상, 최준관(플라긴스디자인 대표)·이경준(현대해상서귀포지점 근무)·배재만(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장) 씨 장인상 = 4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5분향실,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064-730-3710

▲이철중 씨 별세, 이봉순(충청매일 부국장) 씨 부친상·김영재(전 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씨 장인상 = 4일,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6일 오전 7시, 043-269-6969

▲김효순 씨 별세, 손만지 씨 배우자상, 손은영 씨 모친상, 서승중(우리는행 삼성기업영업본부 본부장) 씨 장모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15호, 발인 6일 오전 6시, 02-3410-3151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하고 오래 일하고 싶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퇴직연령은 여전히 낮고, 은퇴하지 않더라도 50세 이상의 취업은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로 매꿔지고 있다. 신노년이 이끌 초고령사회에 절대적 빈곤은 줄어들더라도 노후불평등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년기 이행은 큰 관심사다. 이들은 모두 약 730만 명으로 기존의 노인인구 전체를 합친 것에 맞먹는 거대한 규모로 주목받아 왔다. 이들을 ‘신노년’이라 부르는 것은 기존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노년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이 세대는 교육수준이 높고 평생직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군 자긍심이 강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력을 가졌다고 알려져있다.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어서고 은퇴 후에 삶을 즐기려는 성향도 강한 활동적인 세대다. 60대가 되어서도 노인이라는 고정 틀에 갇히고 싶어하지 않는다. 초고령사회가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신노년의 출현은 희망적인 소식이다. 신노년의 시대에는 노인빈곤도 크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신노년층에게는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국가에 덜 의존하는 ‘생산적 노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신노년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건강하고 오래 일하고 싶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퇴직연령은 여전히 낮고, 은퇴하지 않더라도 50세 이상의 취업은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로 매꿔지고 있다. 신노년이 이끌 초고령사회에 절대적 빈곤은 줄어들더라도 노후불평등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주택 등 자산보유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고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위계층은 여전히 공적 지원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퇴직금을 내 집 마련과 자녀에게 쓰는 한, 중산층도 공적연금만으로는 퇴직 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족 상황은 어떨까.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대에 걸친 현상이지만 특히 50대 후반 이후 독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 세대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며 돌봐 드렸으나 막상 자녀세대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끼인 세대, 부부간에도 서로의 노후에 심신을 편히 기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외로운 세대인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소득, 돌봄 등 고령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아직 든든히 갖춰지지 않은 문제는 대규모 신노년

의 출현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사회를 위한 가장 크고 중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까는 일이 국가가 해야 할 숙제라면, 지역과 개인 차원의 대응 여지도 크다. 우선 이들은 건강한 노후를 대비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는 세대다.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와 예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면, 건강하게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을 위해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역에 주어진 숙제다. 교육수준이 높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진 신노년은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화를 실현해갈 수 있다. 자기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가장 유망한 실버산업 영역 중 하나다. 개인 유료 이용자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대신 자립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공적연금급여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주택소유율이 높은 신노년층에게 주택연금 은 노후소득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기 집에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면 가능하다.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연금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주택연금 이용자의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은 101%, 주택 보유 고령층 중 30% 정도가 잠재 수요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은 아직 1%에 불과하다.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결국 초고령사회 대응은 신노년의 주도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을 현명하게 재구조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가가 돌봄과 소득 보장 of 가장 어렵고 큰 짐을 가족 대신 나눠 맡고, 지자체는 민관협력력을 통해 세심하고 질 높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의 실버산업을 활성화하는 생산적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족은 노후의 돌봄을 온전히 기대고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애쓰는 상호 부담의 관계 대신 더 많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건강한 정서적 지지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대방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방 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 쇠퇴와 지방 경제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36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발표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순서이며 대부분 농산어촌 군 지역이다.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입장은 착잡하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직결된다. 2021년 6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으로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당연히 수도권 집값 상승, 특히 아파트값 폭등을 가져와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수십 번 발표해도 효과가 없는 밀바닥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자리 잡고 있다. 지방 대학 침체, 지역 경제 황폐화, 지역 일자리 부족, 지방 불균형 등 중앙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앙이 됐다. 지방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소멸이 가까이 다가왔으며 올해는 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직격탄을 맞았다. 필자는 공직 퇴임 후 경북 대학교에서 3년간 초빙 교수로 근무했다. 중앙정부의 40년간 근무 경험을 토대로 농식품 정책과 미래 변화를 강의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르쳤으나 마음 한 구석에 늘 미안함이 있었다. 지방 대학이 활기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지방 대학 출신의 취업이 어렵고, 대학이나 교수의 열정도 식어간다. 학생들 의욕과 사기가 떨어짐을 실감한다. 최근 지방 대학의 합격 포기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산대 83%, 경북대 86%, 충남대 111%, 전남대 120%, 강원대 146%에 이른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올해 신입생 총원율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92.2%,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82.7%를 기록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백악이 무효였다. 매년 저출산 대책에 몇조 원씩을

쏟아부었으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지방에서 ‘아기를 낳으면 몇백만 원을 준다’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나 실효성이 없다. 올바른 진단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 문제를 인프라 구축이나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처방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에 대한 혁명적 전환을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과를 지방에 지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지방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해 정부 지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입시제도 개혁, 대학서열 폐지, 차별화된 평가지표 수립, 공기업의 지방대학 인재 선발도 대폭 높여야 하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 행정 조직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

체 체제로는 근본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 중앙정부, 시·도, 시·군의 오래된 행정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메가 시티 시대에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체제는 맞지 않다. 지방 시·군의 대대적 통합과 대학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지방 대학이 살고 지방 행정이 산다. 지방 행정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농산업에 역점을 뒀야 한다. 농산업은 지역에 바탕을 둔 산업이다. 지금의 농산업은 과거 생산 위주의 농산업이 아니다. 유통, 가공, 저장, 수출입, 신소재, 바이오 등 무궁무진하게 범위와 영역이 확대된다. 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하고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다. 연간 35만 명이 귀촌·귀농을 하며, 농산어촌이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변모하고 무한한 블루오션을 창출한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은퇴자 일자리가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 준비하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대통령 후보의 각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존 버거 명언

“삶에서 의미란 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의미는 관계를 짓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영국 사회비평가다. 소설가, 화가로도 활동한 그는 BBC가 방영한 미술비평 시리즈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의 작가이자 진행자였다. 이 시리즈는 같은 제목의 에세이로 출판되어 현재까지 대학에서 세미나의 텍스트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소설 ‘G.’로 1972년 제임스 테이트 블랙 메모리얼 상과 부커 상을 수상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아홉, 영화비평가 잭아, 예술가 이브스는 그의 자녀들이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26~2017.

☆ 고사성어 / 폐일언(蔽一言)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한마디 말로 휩싸서 말한다’라는 뜻. 논어(論語)의 위정(爲政)편에 나온다. “시경(詩經) 삼백편의 시를 한마디 말로 뚫고그려 말하면 생각에 사악(邪惡)함이 없다[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라고 했다. 여기서 왔기 때문인지 글 읽은 이들 중에 ‘폐일언하고’ 보다는 ‘일언이폐지하고’를 즐겨 쓴다.

☆ 시사상식 / 리추얼 라이프

‘리추얼(Ritual)’과 ‘라이프(Life)’가 합쳐진 말.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칙적인 습관을 뜻한다. 일찍 일어나기, 독서하기, 하루 2L 물 마시기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실천을 통해 코로나 블루와 취업난, 주택난 등에서 오는 무력감을 극복하고, 심리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MZ세대의 욕구가 반영된 라이프 스타일이다.

☆ 신조어 /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성을 뜻하는 신조어다. 부모들이 자식을 나무랄 때 ‘엄마 친구 아들 ○○는 이번에도 장학금 받는다더라’처럼 친구 자식과 비교하던 데서 시작된 단어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다원 / IT중소기업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발(發) 흥행작이 대세다. 자본을 쏟으면 그보다 더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속속 실현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이다. 제작비 대비 40배 넘는 가치를 지닌 작품이 등장하자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아예 드라마 속 인물들이 입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부사장은 똑같

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에 찬사를 보냈다. ‘간부’로서 한국의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콘텐츠 창작자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포함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진정한 간부가 될 방법은 정해져 있었다. 바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체 개발한 ‘오픈 커넥트(OCA)’ 서비스를 이용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다.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OCA를 거듭 강조했다. 이를 국내 ISP에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OCA를 이용하면 트래픽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OCA를 통해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 있으니, 망 사용료 관련 부담이 커질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간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참 어렵다. 같은 편으로서 이익을 같이 나누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보아하니 간부가 되려면 넷플릭스가 만든 OCA를 통해 트래픽을 줄이되 그래도 넘치는 트래픽

으로부터 망을 지키기 위한 투자는 알아서 해야 한다. 모바일 기기로 OTT 서비스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9월 기준으로 OTT,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에 따른 국내 무선 트래픽은 일 기준 1만 테라바이트(TB)를 넘겼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ISP로서도 관련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친구를 찾아 간부를 맺을 순 없을까? 마침 해외에서 온 OTT가 있다. 그들의 조건을 들여다봤다.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가 이달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 망 사용료를 낸다는 것 같다. leedw@

이슈&인물

기상예보 그리고 기후변화

박광석 기상청장

“날씨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정부는 없다”

최근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속재료를 살펴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인 양상추가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햄버거나 샌드위치 재료에서 양상추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샌드위치 판매장에서는 셀러드 주문을 받지 않는 곳도 여럿 있다. 양상추 공급이 갑자기 줄어든 원인으로 이상 한파가 지목되고 있다. 이른 추위 탓에 편의점에서는 감자와 빵, 어묵 등 매출이 늘고 있다.

날씨 예측 불확실성 갈수록 높아져

박광석 기상청장은 4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날씨로부터 자유로운 국민과 정부는 없습니다”고 단언했다. 박 청장은 “날씨에 따라 소비 형태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날씨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기상예보는 어려운 일이다. 기상청은 종전 기록을 경신하는 현상이 이전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제14호 태풍 ‘찬투’와 같이 이상 진로를 보인 태풍이 많았고, 천둥·번개와 우박까지 동반하는 소나성 강수가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등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기본적으로 기상 예측은 대기가 자연 물리법칙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이제껏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박 청장은 ‘신속·정확한’ 예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정확한 관측자료 △성능 좋은 수치예보모델 △예보관의 우수한 역량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기상청은 해양기상기지 등 관측망을 강화하고, 레이더와 위성 등 첨단 관측자료 분석·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10년간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도 지난해 4월부터 가동했다.

엠피TV 등 유튜브로 상세정보도 전달

“KIM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수치예보모델입니다. 개발 인력과 예보관들이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성능을 높여가고 있죠. 동시에 예보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준별 예보관 교육훈련과 전문직 공무원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보 정확도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남은 간극을 메울 때죠.”

박 청장은 예보 정확도 향상과 함께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그에겐 소통이 바로



기상청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박광석 청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래 기상업무 기반 구축에 힘 쏟을 계획”이라며 “기상예보의 정확도와 함께 날씨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레이더·위성 첨단관측자료 분석
10년 개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KIM’ 지난해 4월부터 가동

예보 정확성 선진국과 비슷
취약층 대상 전달체계 강화 등
국민과 기상정보 소통도 중점

기상예보 넘어 기후위기 대응
미래 예측 과학적 근거 마련
정부간협의체 보고서도 주관

간극을 메우는 열쇠다. 날씨 정보를 국민이 활용해야 가치가 있다는 지론 때문이다. 정확한 예보가 개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돼야 한다는 것. 박 청장은 국민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실무진에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부터 정례 예보 브리핑을 실시하고 엠피TV 등 유튜브 콘텐츠로 상세 기상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상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극한적 재난 상황은 큰 무리가 없도록 적응한 편인데요. 사실 날씨라는 게 자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내포하는데 그 상세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비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일요일에 브리핑을 열기도 합니다. 하루 전날이라도 정보가 바뀌면 빠르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지시했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기상청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기상 예보와 정보 전달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박 청장의 생각이다.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에 지원하는 것도 기상청이 할 일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응용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를 승인하는 전 과정의 주관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참여와 대응을 주도할 것입니다. 8월에 과학적 근거 분야를 평가하는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승인됐고 내년에는 제2그룹(영향·적응·취약성)과 제3그룹(감축) 평가보고서와 종합보고서 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취임 1년, 미래 업무기반 구축 주력

기상청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박 청장은 앞으로 미래 기상업무 기반 구축에 힘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기상, 항공기상, 도시기상 등 기상정보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관련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적기에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다.

“어선이나 여객선 등 선박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상세 항만정보나 항로기상정보도 그 예죠. 도시 중심의 상세 기상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하는 등 내일의 날씨를 넘어 내일을 내다보는 기상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상청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담=장효진 사회경제부장 js62@정리=홍인석 기자 mystic@

사설

美 테이퍼링에 유동성 잔치 끝, 충격 완화 만전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부터 자산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우선 11월과 12월에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 등 1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가 조절된다.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양적완화를 20개월 만에 멈추고 돈줄을 조이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이다. Fed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경기 방어를 위해 매달 1200억 달러(국채 800억 달러·MBS 40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테이퍼링 결정이 금리인상의 직접적 신호는 아니다”며, 시장이 우려해온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는 선을 그었다.

여러 차례 예고된 테이퍼링이고, 당분간 ‘제로 금리’ 유지에 무게를 둔 Fed의 완화적 입장으로 미국과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4일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7.51포인트(0.25%) 오른 2983.22, 원·달러 환율은 1.0원 상승한 1182.6원에 마감하는 등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2013년 갑작스런 테이퍼링 발표로 신흥국 통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긴축발작’을 일으킨 것과는 다르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도 예상에 부합한 수준의 조치라며,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테이퍼링은 지금

까지의 ‘유동성 잔치’가 끝나는 금융 시장 환경의 중대한 변화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부터 세계 각국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재정 투입과 금융 완화로 돈을 풀어 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 테이퍼링은 긴축의 신호다. 일정 기간 뒤 기준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국제 금융·자산시장의 핵심 변수다. 무엇보다 Fed 전망과 달리 인플레이가 장기화하면 금리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긴축은 채권금리와 달러 가치를 올린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신흥국에는 발등의 불이다.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통화 가치와 주가를 떨어뜨려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면서 경기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은이 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이달 추가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도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에 더해 이 같은 우려가 많이 작용했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럽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글로벌 인플레이가 금리인상을 압박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최대 리스크다. 경기까지 둔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시장여건 변화에 경제정책과 금융 당국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야 할 때다.

한 킷



가을밤, ‘집콕’ 탈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인 3일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집콕’만 해야 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친구 등 지인들과 만난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일상회복의 첫 단추를 잘 꿰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본다.

조현호 기자 hyunho@



The new Kia K9

Masters that inspire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더 깊어진 자신만의 향기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그 날을 기다립니다.

[조향사 정미순]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8 GDI 2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9.0km/ℓ (도심연비 : 7.8km/ℓ, 고속도로연비 : 11.0km/ℓ)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30kg |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8 GDI 2WD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8km/ℓ (도심연비 : 7.6km/ℓ, 고속도로연비 : 10.8km/ℓ)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 | 복합CO₂배출량 196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8 GDI 2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6km/ℓ (도심연비 : 7.5km/ℓ, 고속도로연비 : 10.5km/ℓ)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 | 복합CO₂배출량 198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8 GDI A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2km/ℓ (도심연비 : 7.0km/ℓ, 고속도로연비 : 10.3km/ℓ)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00kg | 복합CO₂배출량 204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8 GDI AWD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2km/ℓ (도심연비 : 7.0km/ℓ, 고속도로연비 : 10.3km/ℓ)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00kg | 복합CO₂배출량 210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8 GDI A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 7.3km/ℓ, 고속도로연비 : 10.1km/ℓ)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10kg | 복합CO₂배출량 207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8 GDI A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2km/ℓ (도심연비 : 7.2km/ℓ, 고속도로연비 : 10.0km/ℓ)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10kg | 복합CO₂배출량 209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3 T-GDI 2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7km/ℓ (도심연비 : 7.4km/ℓ, 고속도로연비 : 10.9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05kg | 복합CO₂배출량 199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3 T-GDI 2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6km/ℓ (도심연비 : 7.4km/ℓ, 고속도로연비 : 10.6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05kg | 복합CO₂배출량 200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3 T-GDI A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1km/ℓ (도심연비 : 7.0km/ℓ, 고속도로연비 : 10.1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75kg | 복합CO₂배출량 213g/km - 5등급 · K9 V6 람다Ⅱ 개선 3.3 T-GDI A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0km/ℓ (도심연비 : 6.8km/ℓ, 고속도로연비 : 10.0km/ℓ)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75kg | 복합CO₂배출량 216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향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